

1일 Market Index	
코스피 8303.41 (-173.07)	코스닥 929.35 (+13.17)
금리 (연이자율) 3.791 (+0.088)	환율 (원/달러) 1555.65 (+6.25)

metro® 경제



“당장 계약” 동탄·기흥, 막차수요 러시

경기 남부 3곳 ‘3중 규제’
구리 주택동 일대 ‘관망세’
“규제 발표 후 문의 싹 끊겨”
상승폭 적은 외곽선 불만



환율 17년여 만에 최고 원·달러 마감 환율이 17년 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하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8476.48)보다 173.07포인트(2.04%) 내린 8303.41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916.18)보다 13.17포인트(1.44%) 상승한 929.35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549.4원)보다 5.5원 오른 1554.9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와 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꺼번에 묶자 부동산 시장 현상은 혼란스런 분위기다. 동탄과 기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생(7월5일)하기 전에 계약을 진행하려는 ‘막차 수요’가 몰렸다. 반면 구리 주택동 일대에서는 발표 직후 매수 문의가 끊기는 등 지역별 온도차가 감지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동탄, 기흥, 구리 등 경기 남부 3곳을 ‘3중 규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투기와 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과 세제 규제가 강화되고, 토허구역에서는 실거주 요건이 붙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어려워진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누적 아파트 값 상승률은 화성 동탄구가 11.38%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구리시는 7.87%, 용인 기흥구는 6.21% 올랐다. 단기간 집값이 급등했던 곳이 한꺼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동탄역 인근에서는 규제 시행 전 매물을 정리하거나 투자성 매물을 찾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동탄역시범우남퍼스트빌아파트 인근 부동산공인중개업소 대표는 1일 “조금 더 싸게 내놓더라도 매도하려는 사람이 있었고, ‘세 안고’ 살 수 있는 물건을 찾아달라는 문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개업소 커뮤니티에서는 당장 계약 가능한 투자 물건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들고 있다”며 “토허제로 묶인 이후에는 실수요자들이 시장을 관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용인시 기흥구 일대 중개업소도 발표 직후 문의가 늘었다. 기흥역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동탄이 많이 오르다 보니 같이 규제하면 될 수 있겠다는 예측은 했다”면서 “갑작스러운 발표에 당황하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묻는 전화가 많았다”고 전했다. 규제 전 계약을 서두르려는 수요도 있었다. 그는 “앞으로 대출이 어려워지니 가능한 매물을 찾아 빨리 계약하려고 했다”고 귀띔했다. 기흥역 일대는 최근 동탄의 대체지로 주목받으며 매수세가 붙었다. 동탄 집값이 단기간 급등하자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기흥으로 눈을 돌린 수요가 유입됐다. <2면에 계속> /채재희 수습기자 cr56@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
AI시대 성공적 노후 위한 자산전략

최근 우리 사회는 늘어나는 평균 수명과 삶의 질 향상으로 평생 자산관리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100세 플러스 포럼’의 성공적인 출발을 토대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오는 7월 9일(목요일) 개최합니다. 올해 포럼 주제는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 및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AI 시대에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상속, 증여 전략, 부동산, 금융자산, 대체투자 및 미래투자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2)
- ◆ 주 제 :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
- ◆ 일 시 : 7월 9일(목)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1시40분~2시)
-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 문 의 :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metro®

홈플러스, 회생안에 자금방안 못 써

청산·회생 운명의 일주일 협력사들, 회생 탄원 제기 경영진 검찰수사 강화 요구

홈플러스가 기업 청산과 회생을 가르는 운명의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핵심인 신규 자금 조달 방안은 여전히 마련하지 못했다. 협력사들은 회생을 촉구하는 탄원을 제기했고,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경영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칸)이다. MBK파트너스는 기존 자금 투입과 지급보증을 합쳐 총 4200억원 규모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김병주 MBK 회장의 사제 출연과 개인보증 등 대주주의 추가 책임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7월 3일로 예정된 기결 기한 연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가 기업 청산과 회생을 가르는 운명의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핵심인 신규 자금 조달 방안은 여전히 마련하지 못했다. 협력사들은 회생을 촉구하는 탄원을 제기했고,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경영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 서울회생법원에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사는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점포를 126개에서 67개로 줄이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를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비용 약 1조2000억원을 절감했으며, 영업 정상화 시 연간 800억원, 3년 내 15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업성 개선 내용을 회생계획안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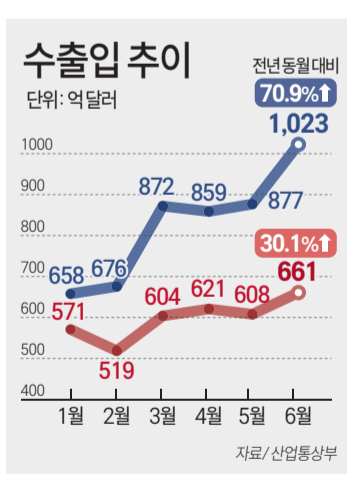
그러나 회생의 성패를 좌우할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조달 방안은 여전히 공란(빈

협력사들의 회생 촉구도 이어졌다. 이날 홈플러스에 상품과 용역을 공급하는 4603개 협력사는 국민신문고에 ‘홈플러스를 지켜달라’는 탄원을 제기하고 서울회생법원에 서명지를 전달했다. 협력사들은 “매출의 절반 이상을 홈플러스에 의존하는 업체가 적지 않아 파산 시 중소기업 연쇄 도산과 대규모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지원과 메리츠의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홈플러스 전담 채권해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에 대한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

사상 첫 1000억 달러... 韓 수출 ‘새역사’

산업부, 6월 수출입동향
전년 동기대비 70.9% 증가
獨·中·美 이어 세계 4번째
무역수지 361.5억 달러 흑자



대한민국 수출이 역사상 처음으로 월 수출 1000억 달러 고지를 밟았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기업용 SSD 등 IT 기기의 폭발적인 성장에 수출 성장을 견인했다. 월 수출과 무역흑자 규모 모두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며, 상반기 전체 실적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전 세계 수출 5위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0.9% 증가한 1023억 달러(약 158조 4627억원)

를 기록했다. 월간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건 우리나라 무역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적으로도 독일(2006년 10월), 중국(2007년 6월), 미국(2007년 10월)에 이어 네 번째다. 이 기간 수입은 30.1% 증가한 661억 달러(약 102조 5542억원)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361억 5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무역수지 역시 사상 처음으로 월 300억 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로써 우리 수출은 13개월 연속 플러스, 무역수지는 1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게 됐다. 조업입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 역시 59.5% 증가한 45억 4000만 달러로, 2개월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시가 싸아 올린 반도체 신화... 6월 한 달에만 448억 달러 기록 이번 ‘수출대박’의 일등공신은 단연 반도체와 IT 품목이다. 6월 반도체 수출은 D램 고장가격 반등과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의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전년 대비 199.5% 폭증한 448억 2000만 달러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로 4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미국 에너지부의 전력 연결사 기간 단축 요청으로 글로벌 데이터센터가 조기 운영 단계에 진입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다. 핵심 메모리인 DDR5 16Gb 고정가격은 올해 4월 35.5달러에서 5월 37.5달러, 6월 40달러로 치솟으며 단가 상승을 견인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도 고부가 저장장치(SSD) 수요가 몰린 컴퓨터 수출 역시 전년 대비 308.8% 증가한 54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선통신기기 역시 신제품 효과로 51.9% 증가한 15억 5000만 달러로 8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다. <3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 고용진 전 의원 임명 /사진 뉴시스
- ▲ 정부, G20 세르파 참석...정상회의 추진방향 논의
- ▲ 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환경 지원...950억원 투입
- ▲ 소방청 조직 내 갑질 근절...익명 제보시스템 운영
- ▲ 선거관리위원회 “하반기부터 선거인 수 100% 원칙 적용”

“상속세 20% 인하시 과세기반 200조 ↑… 최적 세율 22%”

‘상속세 개편’ 정책 세미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참석
실증적 데이터 기반 개편 논의 촉구
“부자 감세가 아닌 기업·투자 감세”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국내 자본 유출과 강소기업의 매각을 부추겨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수 안정성과 경제 활성화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상속세율은 ‘22%’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 등은 1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과 제9간담회의실에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며, 최대 주주 할증까지 적용될 경우 무려 60%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의 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 개편은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부자 감세가 아닌 기업·투자 감세”라며 “이 자리가 기업 상속세에 대한 편견을 바꾸고 기업 감세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와 국회의 보완 입법에 의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의 주최자인 박수영 의원은 상속세 개편 논의를 두고 이념과 현실의 대립을 넘어 실증적 데이터 기반의 논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故) 정회동 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사모펀드에 매각된 청호나이스의 사례와 락앤락, 쓰리세븐 등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매각 현실을 언급하며 “이런 회사들까지 전부 외국 자본에 팔려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의 일자리, 우리 기업들, 우리 국내총생산(GDP)를 떠받치고 있는 좋은 기업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또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잘해서 (기업들) 자녀들, 다른 사람들에 넘겨주며 계속 키워나가고 싶어 하는 이윤 동기가 인간의 본성”이라며 “이를 막으려고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라고 보았다.

박 의원은 “이념과 현실 논쟁은 그동안 수없이 해왔지만, 데이터를 기반한 실질적인 논쟁은 많이 약했었다”며 “오늘 세미나가 이런 실질적인 논쟁이 시작돼서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 국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인하 효과’ 발표를 통해 시물레이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할 경우 해외 유출 자본의 잔류, 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 외국 자본 신규 유입 등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국내 총과세 기반이 기존 473조8700억원에서 675조5200억원으로 약 201조6500억원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수 안정성과 국내 자본 잔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균형형 최적 상속세율’을 탐색한 결과, 약 22%라는 수치가 나왔다.

유 교수는 “최저 구간을 봤을 때 균형형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 구간이 약 22%,

20~25% 수준에서 세수가 최대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2037년이 되면 세수가 역전이 되고 그 차이 격차가 점점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극적으로 과세 기반이 확대돼서 국부가 유출되지 않고 해외 자산이 복귀함으로써 한국의 경제가 더 좋아지게 되고 오히려 세수도 말씀드린 대로 더 커지게 된다”고 했다.

유 교수는 높은 세율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높은 세율이) 서민이나 전 국민을 위한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상속세를 높게 가는 것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라며 “상속세를 인하하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고 국부가 증가해 전 국민들 그리고 서민들에게까지 더 좋은 효익이 간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 최승호 자유기업원장,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만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 1면 “당장계약” 동탄…’서 계속

최태원 “기업이 투자·혁신 나설 수 있는 기반 마련돼야”

(SK그룹·대한상의 회장)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

최 회장, 예측가능한 경영환경 강조
조정식 의장 “제도·정책 뒷받침 할 것”

“기업은 방향이 보여야 움직이는 만큼 예측 가능한 법과 제도 환경이 마련돼야 더 멀리 보고 빨리 움직일 수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상공회의소 경제 대도약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보다 언제 될지 모르겠다는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지만 이를 실제 성장으로 연결하려면 기업이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는 반도체와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상공회의소 경제대도약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 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있다”며 “중요한 것은 그 경쟁력을 다음 성장으로 연결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AI 확산에 따른 산업 현장의 변화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AI는 사업 방식과 경쟁 규칙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며 “기업 현장에서도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시도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변화를 실제 성장

으로 연결하려면 결국 기업이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투자하고 인재를 키우는 실행이 늦지 않도록 법과 제도, 환경도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경제계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투자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 더 많은 기회로 이어지고 그 기회가 청년과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와 경제계가 현장을 더 가까이 보고 앞으로도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기업 투자와 혁신을 국가가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인사하는 일회성 자리라 아니라 경제계와 국가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만들고 도약을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의 자리”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AI, 반도체, 로봇, 에너지 등 첨단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급격한 대

전환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했다.

국회와 경제계의 협력 채널을 넓히자는 제안도 나왔다. 조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연결하는 협력의 틀을 갖추면 좋겠다”며 “경제계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의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의회 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주요 기업인들이 산업법 입법·정책 지원 과제를 건의했고, 조 의장은 각 건의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검토할 부분을 하나씩 짚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계는 퍼지컬 AI·로봇 생태계 육성과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지원 등을 요청했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단기 매수세 감소 전망 전문가들 “신중히 접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사업장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 여건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특히 역세권 준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젊은 실수요층이 몰리고 있다.

구리시 수택동 일대는 동탄·기흥보다 관망세가 짙었다. 장지호수공원역 인근 공인중개업소대표는 “규제지역으로 묶인 뒤 사람들이 많이 당황스러워 한다”며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예고 없이 바로 시행되다 보니 다들 망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현장 곳곳에서는 지역 전체가 규제로 묶인 데 대한 불만도 나왔다.

부동산 관계자는 “동탄이나 기흥은 역세권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셔틀버스가 다니는 곳들이 많이 오른 것”이라며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외곽에서는 동탄, 기흥 전체가 한꺼번에 묶인 데 대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분위기가”라고 전했다.

향후 가격 조정 가능성에 대한 시각은 엇갈린다. 먼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갭투자가 막히면 거래가 줄며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전세 긴 매물이 시장에서 빠지고 실입주 가능한 매물이 줄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전문가들은 3중 규제로 단기 매수세가 주춤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출 규제와 세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주춤할 것”이라며 “반도체 대기업 성과급 기대와 비규제 프리미엄이 가격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삼성전기, 내년 임직원 성과급 1200만원 이상 전망

OPI 산정기준 ‘영업이익 10%’ 변경
AI 부품 호황에 따른 실적개선 겹쳐

삼성전기 직원들이 내년에 지급받는 성과급이 1인당 1234만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초과이익성급(OPI) 산정 기준을 경제적부가가치(EVA)에서 영업이익의 10%로 바꾸고, AI 부품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까지 겹친 결과다.

1일 삼성전기에 따르면 회사는 임직원

을 대상으로 진행한 OPI 산정 기준 변경 투표 결과를 사내 공지했다. 재직 임직원 1만2886명 가운데 9343명(72.5%)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9068명(97.1%)이 ‘영업이익 10%’ 방안에 찬성했다. 기존 EVA 20%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2.9%에 그쳤다.

개편된 기준은 2026년 실적분부터 적용돼 2027년 1월 지급되는 OPI부터 반영된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의 10%를 재원

으로 마련해 전 임직원에게 균등 지급하며, 지급 방식은 현금, 성과급 상한은 연봉의 50%를 유지한다. 이번 개편은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에 올해 임금협상에서 OPI 재원을 영업이익의 10%로 바꾸기로 한 뒤, 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같은 방식을 확정된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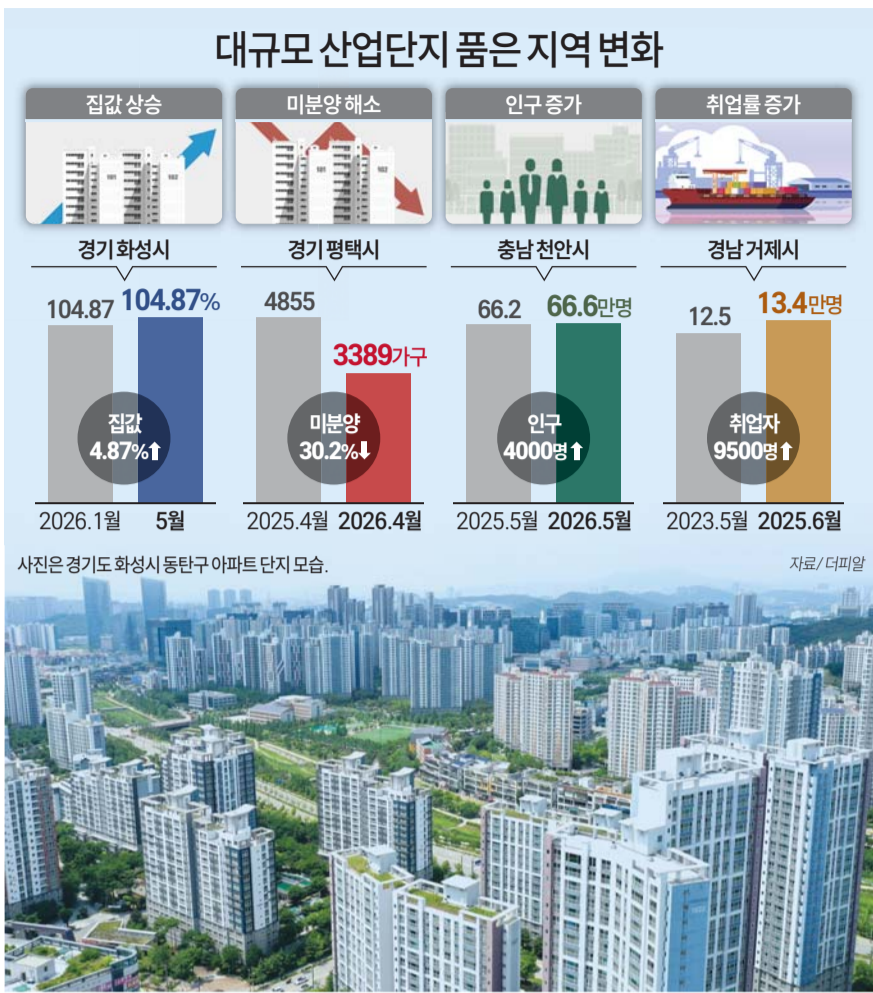
삼성전기는 AI서버용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와 반도체 패키지기판 수요 확대에 힘입어 올해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

1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영업이익의 전망치는 1조5895억원이다.

이같은 전망치가 현실화하면 OPI 재원은 영업이익의 10%인 약 159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전 임직원에게 균등 지급하면 1인당 지급액은 약 1234만원 수준이다. 지급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던 예년과 견줘 큰 폭으로 늘어나는 규모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이 다른 삼성 전자 계열사의 성과급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일자리가 집값 흔든다 신고가 행진, 마피 실종

직주근접 내집 기준 부상
반세권 동탄·수지 집값 급등
광주 첨단3지구 웃돈 전환
평택 미분양 감소세 뚜렷
거제·천안 산업도시 효과

일자리가 주거지도를 뒤흔들고 있다. 반도체 마니가 경기 화성시 동탄 집값을 상급지 수준까지 끌어 올린데 이어 광주 광역시에선 반도체공장 후부지로 거론되면서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가 종적을 감췄다. 일자리와 '직주근접'이 내집 마련 기준이 됐고, 일반적인 현상으로 굳어지는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다. 과거에는 학군과 교통, 생활 인프라가 집값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면 최근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강력한 주거 선택 기준으로 떠올랐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와 산업단지 조성이 주변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반세권(반도체 산업단지 인근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과 용인시 수지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지난 22일 기준으로 각각 11.38%, 9.45% 급등했다. 용인 기흥과 수원시 영통 역시 상승률이 각각 6.21%, 6.15%에 달했다. 전국 평균치(1.55%)는 물론 수도권(3.01%)과 서울(4.82%)을 크게 웃돈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된 동탄의 경우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GTX-A 동탄역과 연결된 '동탄역 롯데캐슬'의 경우 전용 84㎡가 지난달 22억2500만원에 거래됐으며, 20평대인 전용 65㎡도 20억원에 실거래를 신고하며 20억원 대로 올라섰다. 호가는 더 오르면서 20억원 이하 매물은 아예 없는 상황이다.

광주-전남 지역은 대규모 투자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부터 반영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 공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광주 북구 첨단3

지구의 경우 주요 단지에서 '마피'가 사라지고 웃돈이 붙기 시작했다. 대규모 산업 투자가 현실화될 경우 인구 유입과 고용 증가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한 경기 평택시 역시 공급 물량 부담에 쌓였던 미분양이 줄기 시작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평택 미분양 물량은 338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 유입과 산업 생태계 확장이 주택 수요를 지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남부권에서는 조선업 중심 도시인 경남 거제가 업황 회복과 함께 고용 지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중심으로 수주와 생산이 확대되면서 고용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거제 취업자 수는 2023년 5월 12만4500명에서 2025년 6월 13만4000명으로 약 95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용률도 62.7%에서 65.3%로 상승했다. 산업 회복이 지역 소비와 주택 수요 증가로 연결되는 모습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산업단지 품은 직주근접 도시는 일자리 창출이 인구 유입을 이끌고, 늘어난 인구가 교통, 상업 등 주거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고 전했다.

전통적인 산업도시 역시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을 바탕으로 주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캠퍼스, 천안 일반산업단지 등 제조업 기반의 양질의 일자리를 바탕으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탄탄한 배후 수요에 분양 성적도 좋다. 지난 5월 천안시 업성동에 공급된 '엘리프 성성호수공원 1블록'은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26.27대 1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디서 일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LX하우시스, PF단열재 특허분쟁서 최종 승소

**대법원, 명일품 상고 기각
등록무효 소송 원심 확정
원천기술 정당성 법적 인정
"기술우위·지재권 보호 강화"**

LX하우시스가 명일품 주식회사와의 단열재 관련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자가 됐다. 이에 따라 LX하우시스의 고성능 PF(페놀폼) 단열재 원천기술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제2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명일품이 LX하우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2026후10023)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LX하우시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약 4년간 진행된 법적 분쟁이 LX하우시스의 승소로 끝났다.

이번 소송은 LX하우시스가 지난 2022년 3월 명일품을 상대로 친환경성을 강화하면서 단열 성능을 개선한 페놀 발포 단열재

제조 기술 관련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 하면서 시작했다. 명일품은 같은해 6월 해당 특허의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LX하우시스의 페놀 발포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단열재(등록번호: 한국 등록 10-2335439호) 특허의 유효성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특허법원은 지난 2월 2심 판결을 통해 LX하우시스의 특허가 기재 요건을 충족하고 기존 단열재 기술 대비 새로운 기술적 과제와 해결 수단을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규 종합 기술 및 파라미터 개발을 통해 열전도율 향상과 친환경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해 특허 유효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명일품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LX하우시스는 2013년 국내 최초로 PF

단열재를 양산화한 이후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성능을 향상시켜왔다. 국내 건축용 유기단열재 가운데 최고 수준의 단열성을 확보했음은 물론 동시에 화재에 강한 준불연 성능까지 확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과 에너지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건축자재 업계에선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LX하우시스 PF단열재 원천기술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물론 업계에서 원천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킨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특허 무효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함으로써 국내 단열재 업계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장과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단열재 제품 개발에 더욱 힘쓰고 관련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metro

홈플러스 회생기한 임박... 與·노조 "기간 연장해야"

**민주당 을지로위·TF, 법원 앞 회견
"긴급운영자금 투입 땀 정상화 물꼬"**

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오는 3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민주당·진보 정당과 노동조합은 회생 기간의 전향적 연장과 실질적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법원과 광장으로 향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MBK 홈플러스사태해결TF(태스크포스)는 1일 홈플러스에 긴급운영자금을 투입해 영업 활동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다며 회생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서울회생법원에 촉구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유동수 MBK 홈플러스사태해결TF 위원장, 김남근·박희승 민주당 의원, 정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마트노조홈플러스지부, 홈플러스 전단체포해지단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생 절차 기간의 전향적 연장 ▲무분별한 점포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왼쪽에서 5번째), 유동수 MBK홈플러스사태해결TF 위원장(왼쪽에서 4번째) 등이 홈플러스 회생기한 연장 및 회생법원의 역할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매각 및 폐쇄 승인 보류 ▲고용 보장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유동수 TF 위원장은 "하림그룹 산하 NS쇼핑에 인수가 완료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우, 6월초에 NS쇼핑의 상품대금 지급 보증으로 상품 공급이 정상적으로 시작되면서 불과 2주 만에 전체 매출이 회생 절차 이전 수준의 약 50%까지 올라선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형마트도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 투입을 통해 상품 매입, 협력사 대금 지급, 점포 운영 등의 영업 활동이 제대로 이뤄진다

면 회생과 정상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홈플러스가 마련하겠다고 한 3000억원의 긴급 운영 자금 중에 1000억원을 이미 확보했고, 메리츠 측에 따르면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개인 보증만 선다면 1000억원을 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한다"며 "조금만 시간이 더 주어지고 여론이 모아진다면 나머지 1000억 원도 마련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metro



반도체가 이끈 수출 호조... 친환경차·소비재도 선전

>> 1면 '사상 첫 1000억 달러...'서 계속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6월 수출이 1000억 불을 달성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반도체"라며 "최근에 반도체 뿐만 아니라 컴퓨터 수출 관련된 IT제품기 수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연차 줄고 '친환경차' 날았다... 소비재·소재 품목도 고른 선전

자동차 수출은 부품 공급 안정화와 생산물량 증가에 힘입어 5.8% 증가한 67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고급리와 글로벌 수요 둔화 속에서도 하이브리드차(+38.6%, 19억 7000만 달러)와 전기차(+18.1%, 9억 4000만 달러) 등 친환경차가 호실적을 견인한 반면, 내연기관차는 7.8% 감소했다. 강 실장은 이에 대해 "내연차 수출이 줄어들고 있고, 전기차나 친환

경차 수출이 늘고 있다"며 "결국 우리나라 제품들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K-콘텐츠와 한류 확산에 힘입어 유망 소비재의 약진도 돋보였다. 화장품 수출은 글로벌 인지도 확산으로 42.5% 증가한 13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농수산식품은 라면과 조미김 등 가공식품 유행으로 16.8% 증가한 11억 7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美·中 수출 동시 200억달러 돌파... 중동은 전쟁 여파로 부진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수출이 일제히 증가했다. 특히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나란히 200억 달러 고지를 넘었다.

미국 수출(200억 2000만 달러, +78.6%)은 AI 서버 투자 확대로 반도체(+348%)와 컴퓨터(+561%)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대중국 수출(200억 3000

만 달러, +92.1%) 역시 최대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3배 이상 폭증하며 8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아세안(+86.6%)과 EU(+31.8%) 역시 반도체와 선박 등의 선전으로 월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상반기 무역흑자 1383억달러... 정부 "세계 수출 5강 진입 충분히 가능"

6월의 기록적인 폭발력에 힘입어 2026년 상반기(1~6월) 전체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한 4967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 역시 역사상 가장 높은 상반기 실적표다. 특히 상반기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1924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2025년) 연간 총 수출 실적인 1734억 달러를 단 6개월 만에 가볍히 뛰어넘는 기염을 토했다.

정부는 하반기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세계 수출 5대 강국 지위를 굳히겠다는 포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HS효성첨단소재 타이어코드. /HS효성

14 HS효성



HS효성이 출범 2주년을 맞아 독립경영 체제의 기반을 다지며 성장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년간 자회사 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데 이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중심의 독자 경영 체제를 구축하며 그룹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조 부회장은 올해 HS효성첨단소재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되며 현장 경영 보폭도 넓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첨단소재를 비롯해 AI·데이터, 모빌리티 등 미래 성장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실적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HS효성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670억원, 영업이익 12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8%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74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향후 신사업 투자와 사업 확대를 위한 재무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HS효성은 물류와 첨단소재, IT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HS효성은 물류 운송 수요를 기반으로 한 운송수산업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타이어보강재와 산업용 원사, 에어백 원단, 탄소섬유, 아라미드 등 고부가가치 소재 사업을 담당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다.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스토리지와 IT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물류와 소재, IT를 아우르는 사업 구조를 통해 경기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사업 간 시너지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 HS효성첨단소재, 타이어코드 1위 넘어 미래 소재 키운다

조 부회장은 출범 이후 기존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계열사인 HS효성첨단소재는 글로벌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시장 1위 자리를 유지하며 그룹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지속적인 생산능력 확대와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타이어코드는 자동차 타이어의 강도와 내구성을 높이는 핵심 보강재로, 완성차 및 타이어 업체의 품질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분야다. HS효성첨단소재는 이러한 진입 장벽을 바탕으로 미쉐린, 굿이어, 브리지스톤 등 글로벌 톱티어 타이어 제조사와

조현상 부회장 중심 독자 경영 체제 구축 2주년 가치경영 바탕 글로벌 현장경영... '민간 외교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670억, 영업이익 125억

HS효성첨단소재, 타이어코드 글로벌 시장 1위 실리콘 음극재·탄소섬유·아라미드 등 미래 준비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AI·HPC 등 사업 확대

장기 공급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베트남, 중국 등 글로벌 생산 거점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한 것도 경쟁력으로 꼽힌다.

신사업 발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전기차 배터리의 차세대 핵심 소재로 주목받는 실리콘 음극재 사업을 미래 성장축으로 삼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해 2027년 양산에 나설 계획이다. 실리콘 음극재는 기존 흑연 음극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전기차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소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HS효성첨단소재의 탄소섬유와 아라미드는 미래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로 불린다. 탄소섬유는 철보다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뛰어나 우주항공과 방산 무기체계의 경량화를 위한 핵심 소재로 활용된다. 아라미드는 고강도 슈퍼섬유로 방탄복을 비롯한 각종 방산 장비와 전기차용 타이어코드 등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글로벌 방산 투자 확대와 첨단 산업 성장에 따라 두 소재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HS효성은 2000년대 초 화학섬유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소섬유 개발에 착수했다. 2011년에는 국내 독자 기술로 탄소섬유 브랜드 '탄섬(TANSOME)' 개발에 성공하며 국산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2013년 전북 전주에 연산 2000톤 규모의 탄소섬유 공장을 구축한 데 이어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생산 거점을 확대하며 글로벌 공급 체계를 갖춰 나갔다.

아라미드 역시 일찍부터 기술 개발에 나섰다. HS효성첨단소재는 2003년 개발에 착수해 2009년 상용화에 성공했다. 아라미드는 강철보다 5배 이상 강하면서도 가벼운 데다 내열성과 내약품성이 뛰어나 방탄 장비를 비롯해 자동차, 통신, 석유·가스, 건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AI 시대 '캐시카우' 부상

IT 및 인프라 분야에서 사업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HS효성의 IT 계열사인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스토리지와 IT 인프라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ICT 기업이다. 최근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증가와 스토리지 사업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그룹 내 안정적인 현금창출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축적해 온 클라우드와 AI 데이터 역량을 바탕으로 공공 부문의 디지털 전환(DX) 프로젝트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기존 스토리지 중심 사업을 AI와 고성능컴퓨팅(HPC), 데이터 레이크, 클라우드 인프라 등으로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기업별 데이터 환경을 분석하고 AI 활용에 필요한 스토리지와 서버, 네트워크, 보안 체계를 통합 구축하는 솔루션 사업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제조·공공·통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1700여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며 사업 기반을 넓혀왔다. 고성능 스토리지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 사업을 앞세워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고객 맞춤형 IT 인프라와 비즈니스 혁신을 지원하는 종합 ICT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에는 한국은행 데이터레이크 구축 사업에서 설계부터 구현까지 전 과정을 단독 수행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초고속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된 병렬 파일 시스템(HCSF)과 수평 확장 구조를 구축해 향후 AI 서비스 연계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 기반도 마련했다.

연내에는 대규모 AI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블록 하이엔드 스토리지 신제품 출시도 앞두고 있다. AI 기반 랜섬웨어 탐지 기능인 '사이버센스(CyberSense)'와 재해복구 기능을 스토리지에 통합해 사이버 복원력도 한층 끌어올린다는 포부다.

◆ 조현상 부회장, 글로벌 네트워크로 성장판 키워

조 부회장은 가치경영을 바탕으로 글로벌 현장 경영에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1월 다보스포럼에서 데넨드라 파드나비스 마하리슈트라 주 총리를 만나 현지 투자 계획을 직접 논의하는 등 글로벌 사업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도 투자가 단순 생산기지 확보를 넘어 HS효성의 글로벌 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산업용 소재 전시회 '테크 텍스틸 2026' 현장에서 글로벌 파트너사를 초청해 행사를 직접 주재했다. 주요 고객사 및 협력사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도 속도를 냈다.

특히 조 부회장은 민간 외교관 역할도 자처하고 있다. 조 부회장은 APEC 기업 인자문위원회(ABAC) 의장직을 맡으며 글로벌 경제 협력 무대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첨단소재 산업은 기술력뿐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산업재·에너지 기업 등 주요 수요처와의 협력 관계가 중요한 만큼, 조 부회장의 대외 네트워크가 향후 사업 확장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풀이된다.

조 부회장은 글로벌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일수록 가치 또 같이"라는 슬로건 아래 글로벌 파트너사와 동행하는 HS효성의 정신을 변함없이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HS효성나이트 참석자 및 임직원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HS효성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열정 가득한 청년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청년의 더 많은 가능성을 위해
도전이 기회가 되고
그 기회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도록

하나가 청년들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고용 취약계층 대상 인턴십 지원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기업 연계 청년 일경험 제공

실무형 금융 프로젝트 경험을 통한 청년 취업 경쟁력 강화

· 하나 청년 금융인재 양성 프로젝트 운영

지역 청년 창업가 발굴 및 육성

· 전국 30개 대학 연계 지역 청년 창업 지원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 후폭풍... 국민의힘 '보이콧' 맞불

국힘 “李 대통령 공소취소 위한 것 남은 7곳 상임위 구성 협조 안하겠다” 민주, 국회법 개정 등 정상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포함한 11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단독 선출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남은 7곳의 상임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경 입장을 보이자 민주당도 국회법 개정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6월 30일 본회의에서 주요 상임위원 법사위·재정경제위원회·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서영교·조승래·유동수·이광재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이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운영위원회도 민주당이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17차례까지 이어진 원 구성 협상에서 법안 통과와 최종 관문이라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불리는 법사위 위원장직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 위원장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를 양보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에 국민의힘 상임위원을 강제 배정할 것에 반발해 국회 의안과에 상임위원 전원 사임서를 제출하고, 남은 원 구성 협상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견제와 균형’을 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키기 위해 노력했던 관례를 민주당이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켜서 시행하도록 하는 국회의장은 역대(원내) 1당이 차지했었고, 그 밑에 두 번째 관문인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아 견제와 균형이 이뤄졌던 것”이라며 “어느 당이든 동의를 하지 않으면,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 것이

다. (민주당은) 이를 1둘 다 차지함으로써 완전히 (법안 통과)의 고속도로를 뚫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야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 바 있는 민주당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지켰다는 주장이 연일 나오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을 법사위원장 후보로 추천한 것을 두고 “공소취소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명에 영약한 유임”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의원은 “국회 또한 공소취소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법안 처리의 중심은 국익과 민생에 달려 있어야 하는데, 여기(공소 취소)에 맞춰져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원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국회법 개정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주요 의사 진행 지연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

적 의사 진행 방해) 기준을 강화하거나 오히려 법안 처리를 지연한다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제를 손봐, 빠른 민생 입법 처리를 완수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이것조차 견어차고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특히 필리버스터 신청 및 유지 기준을 강화해서 민생법안조차 정쟁으로 인질 삼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허울뿐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도 손보겠다. 현행 최대 330일은 제21대 국회 가결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보다 길다”며 “말 그대로 빠른 법안 심사가 가능하게 제도를 손보겠다”고 했다. 이어 “제22대 국회 후반기에는 무책임한 정쟁과 태업이 조금도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李·文 전 대통령 회동... ‘통합’ 메시지 강조

민주당 내홍에 당 화합·지지층 결집 추 “구조적 다수 확보·외연 확장 필요”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의 내홍이 극심해지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오전 회동을 갖고 한목소리로 ‘통합’을 이야기했다. 특히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수시로 문 전 대통령과 소통하며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여전히 당원들의 지지가 높은 문 전 대통령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최근 극심한 내홍으로 피로를 느끼는 핵심 지지층을 달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전 회동을 했다. 민주당의 두 전·현직 대통령이 공식 회동한 것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집권해서, 모두를 대표해서 모두를 위한 정치·행정을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끊임없이 의견을 확장하고, 그래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성과를 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오전 회동을 하기 위해 상춘재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야 그게 뒷받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된 ‘구조적 다수’는 민주개혁진영을 사회의 주류로 만들고, 이를 위해서는 통합과 외연확장이 모두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보다 앞서 발언한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단합, 민주개혁 진영과의 더 큰 단합 그리고 국민통합까지 나아가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선 우리 이재명 대통령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의 핵심 지지층에게 이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한

셈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임 민주정부의 성과를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일부 극렬 지지층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있었고, 이에 대해 유시민 작가 등이 지적에 나서면서 갈등이 커진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수시로 문 전 대통령과 소통하며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경총 “노동법 고쳐야 투자 산다”... 국힘 개정 약속

경제 현안·노동시장 제도 개선 논의

국민의힘과 한국경제자총협회(경총)가 1일 정책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제 현안과 노동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영계는 낮은 노동법이 기업 생산성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용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법 개정을 약속했다.

경총은 이날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최근 우리 경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 지속에 따른 물가 자극과 기업의 투자 위축, 양극화 심화 등으로 여전히 많은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낮은 노동법 제도가 기업의 생산성과 일자리 창출 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대기업과 하청 노동조합(노조)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사용자의 대응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법이 시행된 이후 경영계가 우려했던 산업현장의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시행 첫날부터 수백 개에 달하는 하청노조가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

당 복귀한 김민석... 정청래 겨냥 견제구

“정 전 대표, 두 번 할 필요성 있나”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일 이임식을 마치고 당으로 복귀했다. 김 전 총리는 조만간 8·17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당 대표를) 굳이 두 번 할 필요나 필연성은 지금 발견하기 어렵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김 전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한성수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이날부로 민주당의 원으로서 국회로 돌아왔다. 이날 오전 이임식을 끝으로 총리직을 마무리한 김 전 총리는 국회를 찾아 당내 인사들을 만나는 등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저녁엔 상임고문단과의 만찬도 예정됐다.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와 함께 이번 전당대회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힌다. 최근 강연 등에서 당과 국회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내며 당권 행보를 보이고 있었다.

공식 출마 선언은 내주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염태영·이용우·윤종균·김태선 의원 등이 김 전 총리 측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원들이 총리 측에 대거 합류하는 모습에 당원들이 오히려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캠프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도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전날 1차 회의를 열고 대략적인 전당대회 일정을 정했다. 8월 1일 충남·충북·대전, 2일 부산·울산·경남,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15일 전북·전남·광주, 16일 서울·경기, 17일 대전 순으로 순회경선에 나선다.

다만 1일 충청권에서 순회경선이 시작되는 것을 두고, 정 전 대표에게 유리한 일정을 짠 것이 아니냐는 김 전 총리 측 일부 인사들의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전준위·당사무처 측은 “(장소) 대안이 가능한 곳부터 일정을 잡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방문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한편 당으로 돌아온 김 전 총리는 이날 오마이TV 인터뷰에서 경쟁자인 정청래 대표에게 견제구를 날렸다.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보다는 좀 다른 색깔과 역량과 스타일과 장점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면서 “(당 대표를) 굳이 두 번을 할 필요나 필연성은 지금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정부는 일을 하는 곳이지만 당은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라며 “정부는 권력을 정책으로 행사하는 곳이지만 당은 권력의 원천이고 권력을 만드는 곳”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정부에 대한) 단단한 기반과 뒷받침이 필요한데,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결과로 (당이)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전 총리는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 비해서 당의 역할의 폭과 속세의 크기가 더 넓고 커지고 강해졌다. 당이 더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라면서 “정 전 대표가 애썼고, 고생했고, 이룬 것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전체적인 과제와 속세가 다른 리더십으로 실현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의 중심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맞게 지원하는 여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그 점에 있어서 제가 가장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MOZZARELLA
BURGER
CHEF EDITION

버거에 파인애플을

WHY?

단짠 조합으로 맛있게

HAWAII!!



By chef 삐딱한 천재

하와이안 모zzarella버거

LOTTERIA™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비대면 금융·인공지능 활용 일상화 은행, 채용 줄여도 IT 인력은 증원

4대 시중은행, 상반기 채용서 AI플랫폼 개발 등 IT 전형 확대 1분기 신규 예·적금 90% 비대면 창구업무·상담에도 AI 적극 도입 기존직원 디지털 문해력 향상 나서

국내 은행의 '인재상'이 바뀌고 있다. 디지털 금융과 규제환경 변화로 개발 능력과 인공지능(AI) 전문성 등 디지털 역량이 금융기관의 주요 경쟁력으로 떠오르면서다. 은행들은 채용 과정에서 정보기술(IT) 분야의 비중을 키우고, 영업점 및 본점 직원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은 올해 상반기 채용에서 AI·플랫폼 개발 등 IT 부문 채용 전형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운영했다. 아울러 일부 은행은 수시채용 및 인터뷰를 통한 IT 인력 충원도 별도 진행한다. 영업점 축소나 지속되면서 은행의 전체 채용 규모는 줄었지만, IT 인력 충원 규모는 지난 몇 년간 빠르게 늘고 있다.

과거 은행권은 IT 부문은 기피업종으로 분류됐다. 망분리 규제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의 사용 제한으로 개발한

경이 제한됐으며, 전산망의 운영체제(OS)도 1960년대에 출시된 메인프레임(Mainframe)과 코볼(COBOL) 등 구시대적이었던 만큼 업무의 호환성도 낮아서다. 은행의 영업환경도 영업점 중심의 오프라인 환경이었던 만큼, IT 인력의 중요도는 높지 않았다.

최근 은행권에서 IT 인력의 중요도가 높아진 것은 비대면 금융이 일상화하면서 은행 간 경쟁이 온라인으로 이동해서다. 올해 1분기 4대은행의 예·적금 신규 가입의 약 90%는 비대면 거래로 진행됐고, 신규 개인 신용대출의 80~90%도 온라인 환경에서 공급됐다. 온라인 환경에서는 은행 간 금리 비교도 손쉬운 만큼, 은행 앱의 UX·UI(인터페이스) 접근성 등 비(非) 금융적 요소가 경쟁력으로 부상했다.

은행권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인공지능(AI)의 활용도 인재상 변화의 이유다. 최근 국내 주요 은행들은 비용 효율화를 위해 창구 업무나 상담 등에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AI 도입으로 은행 운영에 필요한 인력 규모는 줄어드는 반면, 학습이나 신규 모델 개발 등에서 IT 인력의 필요성은 오히려 커졌다.

망분리 규제 완화, SaaS의 제한적 허

용 등 규제환경 변화도 금융권의 채용 양상에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부통제 기준을 충족한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망분리 예외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올 상반기 별도 승인 없이도 은행 내부 업무망에 SaaS 활용을 허용한 데 이은 조치로, 금융권에서는 금융환경 변화에 걸맞는 점진적 규제 완화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국내 은행들은 기존 직원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에도 힘쓴다. 4대은행은 모두 임직원 대상 AI·활용 교육 및 개발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내부 공모전이나 심화교육을 통해 특화 인력을 발굴 및 육성하고 내부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기존 직원의 IT 역량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환경 변화로 은행 앱 개선이나 인공지능 활용에 특화된 인력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각 은행도 IT 인재의 채용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며 “은행 간 경쟁이 온라인 환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만큼, 금융권의 IT 인재 선호도가 더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도 치요다구에 위치한 인프로니아 홀딩스 본사에서 (왼쪽 두 번째부터) 인프로니아 홀딩스 키베 카즈나리 대표집행임원 사장과 삼성물산 오세철 대표이사 사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물산

삼성물산-日 인프로니아, 인프라 사업 협업

해외 PPP 사업 등 공동 추진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일본의 종합 인프라 서비스 기업 인프로니아 홀딩스(Infroneer Holdings)와 글로벌 인프라 개발과 컨설팅 및 PPP 사업 등 분야에서 전략적 협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도 치요다구에 소재한 인프로니아 홀딩스 본사에서 인프로니아 홀딩스 키베 카즈나리 대표집행임원 사장과 삼성물산 오세철 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프로니아 홀딩스는 건설사업을 통해 축적한 엔지니어링 역량을 보유한 종합 인프라 서비스 기업이다. 일본 내 공항·도로·상하수도·경기장 등 컨설팅 사업과 PPP 시장을 선도하며, 다양한 인프라의 개발과 건설·운영·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삼성물산의 풍부한 EPC 수행 경험과 관리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로니아 홀딩스의 건축·도로·수자원 등 개발·컨설팅 및 PPP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인프라 개발 시장을 선도할 예정이다.

양사는 ▲일본 국내외 개발 및 컨설팅 사업 협업 ▲해외 PPP 사업 공동 추진 ▲공동 투자 및 기술 인력 교류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계획이다.

키베 카즈나리 사장은 “양사가 보유한 강점을 결합해 일본 및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양사가 함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철 사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인프로니아 홀딩스의 탈 EPC 전략에 따른 투자개발 등의 사업 전문성과 삼성물산의 글로벌 사업 수행 경험을 결합해 일본과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금융사 평가시 소비자 정보제공 실적 반영

금감원, 소비자 금융피해 예방 일환 상품설명서 SMS 발송 등 평가 포함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실적을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소비자보호 정보 확산을 위한 금융사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목표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소비자단체, 금융업계 및 전문위원회가 참여하는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도출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과

업계가 소비자보호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금융소비자 정보 제공과 관련한 실적을 반영한다. 소비자보호 정보의 상품 설명서 반영 여부나 문자메시지(SMS) 발송을 통한 소비자보호 제공 실적 등이 금융회사의 실적 평가에 포함된다.

아울러 금감원 차원에서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스포츠·카드뉴스 등 시각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소비자보호 정보 확산에 힘쓴다. 기존 보도자료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은 확산 규모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별도의 시각물을 구성해 소비

자보호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파한다는 목표다.

소비자 경보와 유의사항을 상품 판매 시부터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 소비자 경보 발령 시 관련 내용 및 필요성을 감안해 금융회사가 기존 소비자에게 SMS 등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금융회사의 참여를 독려하고, 금융회사 자체 채널을 통한 주요 민원 사례 안내도 요청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해 금융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나아가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안승진 기자

공유오피스 대부업 사업장으로 못 쓴다

금융당국, 등록요건 대폭 강화 유령 대부업체 등록·양도 금지 '쪼개기 대출' 편법영업 제한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차단을 위해 대부업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공유오피스를 활용한 '유령 대부업체' 등록과 등록증 양도·판매가 금지되고, 소득·부채 확인 의무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대출' 편법 영업에도 제동이 걸린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이용료가 저렴한 공유오피스를 임차하여 대부(중개)업을 등록한 뒤, 그 등록증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양도·판매할 수 없도록 한다.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 고정사업장을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하고 ▲다른 대부업체가 이미 고정사업장으로 사용중인 장소는 제외한다. 실제없는 대부업체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일부 대부업체가 타 업체와 연계해 재부 이용자에게 나누어 대부하는 것도 금지된다. 지금까지 차주는 1800만 원을 대출받거나 할 경우 300만원씩 6개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갚아야 했다.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 징구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왔던 편법 영업이다.

앞으로는 소득·부채 증명서류 징구의



Chat GPT가 생성한 불법사금융 차단 이미지.

무의 면제기준이 되는 대부금액 산정시 대부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에 더해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7일간 거래 상대방이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받은 금액을 합산하도록 하여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한다.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기관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일선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확인된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경찰청장이 직접 요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기관을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강화된 대부업 등록요건을 적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며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민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보완, 집행 필요사항 등도 지속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우리는 해낸다, 목표로 새 미래 만들자”

호반그룹 창립 37주년 기념식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이 창립 37주년을 맞아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결국 우리는 해낸다’는 자신감과 치밀한 실행력으로 목표를 반드시 이뤘다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열린 창립 37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안에 내재된 이기는 습관인 ‘위닝 스피릿’을 더욱 각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 우현희 호반문화재단 이사장, 김대현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김윤혜 호반프리퍼티 경영총

괄사장 등 주요 계열사 대표와 임직원, 협력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인화단결’과 ‘정직과 원칙’이라는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열린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실행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호반건설, 호반산업, 대한전선, 호반호텔리조트, 호반프리퍼티, 삼성금거래소, 대아청과 등 주요 계열사 장기근속 임직원 241명에게 근속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또한 20여 개 우수 협력사에 상생협력 지원금을 전달하며 동반성장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호반그룹은 창업 이후 건설을 중심으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열린 창립 37주년 기념식에서 임직원들에게 ‘정직과 원칙’의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한 성장을 당부하고 있다. /호반그룹

로 제조, 유통, 레저, 금융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성장 기반을 다져왔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그룹 전반의 AI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며 사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대한항공, 정비 인프라 대폭 확충 통합 항공사 '안전' 경쟁력 높인다

인천공항 신규 정비 격납고 건설
아시아나 승무원 통합훈련 실시
"안전체계 고도화... 고객 신뢰 확보"



지난 5월 대한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협력해 합동 비상탈출시범을 진행하는 모습

대한항공이 오는 12월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 이후 글로벌 시장 경쟁이 본격화되는 만큼 고객 신뢰의 기반인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인천국제공항에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대규모 정비 격납고를 구축하는 등 안전 운항을 위한 정비 시설을 대규모로 신설·확충하고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올해 3월 창립 기념사에서 "통합을 바라보는 고객들의 기대와 함께 불안감도 존재한다"며 "강화된 안전 기준과 최상의 서비스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이후 300여대 규모로 확대될 기단 운영에 대비해 정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총 1760억원을 투입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활주로 바로 옆에 약 6만1300㎡ 규모의 신규 정비 격납고를 건설 중이다. 중대형 항공기 2대와 소형기 1대를 동시

에 정비할 수 있는 시설로, 중정비와 개조 작업을 집중 수행해 정비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항공기 엔진 정비 역량도 강화한다. 엔진 테스트 셀(ETC)을 증설하고 엔진 정비 클러스터를 구축해 엔진 정비부터 최종 성능 시험까지 한곳에서 수행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의 조종간을 책임지는 운항 부문도 안전한 비행을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의 정기 훈련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등 기반을 다지고 있다. 양사는 동일한 교재와 교육 방식, 표준화된 모의비행장치(MFS)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통합 이후에도 일관된 운항 기준을 유지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객실승무원 안전 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국토교통부 감독 아래 첫 통합 비상탈출 시범을 실시해 비상착륙·착수 절차와 구명정 운용, 공동 비상정비 사용 능력을 점검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을 계기로 시설 투자와 교육, 조직문화, 운영 정책 전반에서 안전 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고객 신뢰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최주선 "삼성SDI, 올해 실적 턱어라운드"

(삼성SDI 사장)

삼성SDI 창립 56주년 기념식
"세계 1등 기술력 회사 발돋움"



기 위한 실행력도 주문했다. 최 사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이런 성과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한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 1년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만큼 올해 실적 턱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주선 삼성SDI 사장(사진)은 1일 경기도 용인 기흥 본사에서 열린 창립 56주년 기념식에서 실적 반등과 인공지능(AI) 기반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최 사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비관적 낙관주의"의 자세로 지난 1년간 묵묵히 내실을 다지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올 초 약속드린 대로 올해 실적 턱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각 사업부의 성과를 언급하며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근 잇따른 ESS 프로젝트 수주와 글로벌 프리미엄 전기차 업체와의 공급 계약, 원통형 배터리 경쟁력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첨단 패키징 반도체 소재와 고화질·고효율 디스플레이 소재 등 고부가 산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도 강조했다.

성과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

AI를 중심으로 한 업무 혁신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 사장은 "이미 AI는 우리의 일상 곳곳에 들어와 있다"며 "회사가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 지배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AI 네이티브' 기업으로 완벽하게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에이전트 AI가 일하는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 변화의 파고에 과감히 올라타 다시 한번 세계 1등 기술력의 회사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창립기념식은 최주선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과 사업부별 우수 성과를 낸 'SDI인상' 수상자, 장기근속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과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원관희 기자 wk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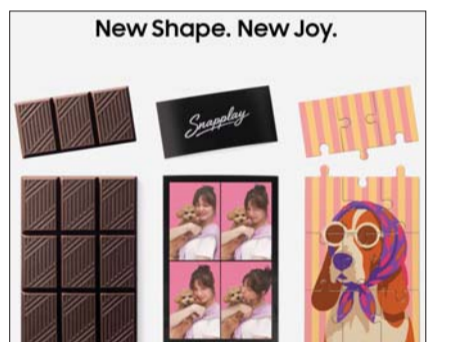
삼성전자, 폴더블폰 '와이드형' 라인업 추가

8세대 폴더블 티저 영상 공개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라인업을 기존 2종에서 3종으로 확대한다. 기존 갤럭시 Z 폴드와 갤럭시 Z 플립에 더해 가로로 넓게 펼쳐지는 '와이드형 폴드(가칭)'를 새롭게 추가한다.

1일 삼성전자는 글로벌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계정을 통해 8세대 폴더블 티저 영상을 공개하고 이 같은 라인업 확장 방향을 예고했다. 영상은 길쭉한 초콜릿을 부러뜨리거나 스티커 사진을 찢는 등 일상의 소재를 활용해 새로운 폴더블폰의 특정 비율과 형태가 드러나는 순간을 담았다.

새로 추가되는 '와이드형 폴드'는 여권을 펼치듯 가로로 넓게 펼쳐지는 형태로 더 넓은 화면과 몰입감 있는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폴더블 라인업은 갤럭시 Z 폴드와 갤럭시 Z 플립 2종 체제에서 와이드형 폴



삼성전자가 공개한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8' 시리즈 티저 이미지. /삼성전자

드가 더해진 3종 체제로 확대된다. 티저 영상에는 AI 활용이 일상 전반으로 확대되고 모바일 기기가 AI 경험의 핵심 진입점으로 자리잡는 변화에 맞춰 기존 폼팩터의 핵심 경험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선택지를 더해 경험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8세대 폴더블폰 신제품은 하반기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정식 공개된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스마트폰 제조사, 부품 비용 효율화 움직임

원가 부담 커져... 카메라 전략 손질

삼성 삼성전기 등 공급망 다변화 나서
애플 렌즈시프트 OIS 기술 적용 검토

AI 메모리 수요 확대로 D램과 저장장치 가격이 오르면서 스마트폰 제조원가 부담이 커지며 삼성전자와 애플이 카메라 부품 전략을 손질하고 있다. 공급망 재편과 부품 설계 변경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AI폰 확산과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카메라를 비롯한 주요 부품의 비용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주요 공급망 구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망에는 삼성전기, 파워로직스, 중국 씨니

옵티컬 외에도 코아시아 계열이 새롭게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아시아씨엠의 렌즈와 지회사 코아시아씨엠코리아의 카메라모듈이 함께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아시아씨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와 카메라모듈을 모두 공급하는 기업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공급망 다변화가 생산 리스크를 분산하는 동시에 원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애플도 아이폰 후면 카메라 모듈에 렌즈시프트 방식의 광학식 손떨림방지(OIS)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렌즈시프트 방식은 카메라 모듈 내부 렌즈군을 사용자 손 움직임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켜 손떨림을 보정하는 기술이다. 반면 아이폰 정규 시리즈에 적용돼 온 센서시프트 방식은 이미

지센서를 직접 이동시켜 손떨림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설계 난도와 제조원가는 높지만 보정 성능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제조원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 애플이 비용 효율화를 위해 렌즈시프트 방식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조사들이 부품 원가 절감을 통해 제품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려고 있지만, 원가 부담이 지속될 경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카메라는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핵심 부품이다 성능을 크게 낮추기는 어렵다"며 "결국 제조사들은 공급망 운영이나 부품 구조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원가 부담을 흡수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완성차업계, 할인·유류비 지원 등 프로모션 확대

개소세 감면 종료... 내수 위축 대응

국내 완성차업계가 7월부터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종료에 따른 내수 시장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7월 한 달간 썸머페스타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쏘나타 ▲싼타페 ▲팔리세이드 ▲스타리아 4개 차종을 출고하는 고객에게 최대 40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제네시스도 동일한 기간에 썸머페스타

를 실시한다. G80, GV70, GV80 3개 차종을 기본 100만원 할인하고, 차량 조건에 따라 최대 10%를 추가 할인한다. 이 외에도 2027 GV70 출시를 기념해 특별 프로모션 'MY FIRST GENESIS'를 진행한다.

한국GM 쉐보레는 이번 달에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를 중심으로 유류비 지원, 저금리 할부, 개별소비세 지원금 등을 제공해 차량 구매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르노코리아는 '60일 반납 보장'이라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차를

두 달 가까이 직접 운행해본 뒤 만족하지 못하면 차량을 반납하고 구매 대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르노코리아는 SUV '그랑콜레오스' 누적 판매 7만 대 돌파를 기념해 7~8월 한정으로 '만족의 확인, 반납의 자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인 고객이 그랑콜레오스를 구매한 뒤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주행거리 3000km 이하의 무사고 차량을 반납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 법적 비용을 제외한 차량 구매가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스탠바이미 2 맥스' 글로벌 출시

글로벌 이동식 스크린 시장 공략

LG전자가 이동식 스크린 'LG 스탠바이미 2 맥스'를 북미·유럽·아시아 주요 시장에 순차 출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국내 출시 당시 흥행을 이어 더 커진 화면과 향상된 화질을 앞세워 이동식 스크린 시장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이달 미국, 캐나다를 시작으로 8월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등 북미·유럽·아시아 주요 국가에 LG 스탠바이미 2 맥스를 순차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LG 스탠바이미 2 맥스는 지난 4월 국내에 먼저 출시돼 전작에 이은 인기몰이 중이다. LG전자 온라인 브랜드샵에서 진

행된 출시 기념 라이브 방송에서는 준비한 초도 물량 200대가 45분 만에 완판됐으며, 방송 동시 접속자가 57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LG 스탠바이미 2 맥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더 큰 화면과 향상된 화질의 스탠바이미를 원하는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기 때문이다.

LG 스탠바이미 2 맥스는 기존 모델의 27형 대비 약 40% 커진 32형 터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또 4K UHD(3840×2160) 해상도를 지원해 더욱 선명하고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 이동성과 사용 편의성도 한층 강화됐다. 내장 배터리 용량은 144Wh로 늘어나 전원 연결 없이 최대 4시간 3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차현정 기자

“기술로 성장, 감성으로 연결”... 김연선 금탑·남미경 은탑 영예

(대한오케이스틸 대표)

(한만두식품 대표)

여성기업주간 5번째 개막

중기부·여경협, 신라호텔서 진행
조정식 국회의장 등 정·재계 참석
여성기업인 포함 500명 한자리

AI 아이돌 ‘이터니티’ 환영인사
W-인사이트 스피치·기술전시

박창숙 회장 “빠른 기술 넘어
바른 기술로 삶의 질 높여야”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은 1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5회 여성경제인의 날’ 개막식을 열었다. 박창숙 여경협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여성기업인을 위한 최대 행사로 올해 다섯번째를 맞는 여성기업주간이 ‘기술로 성장하고, 감성으로 연결하는 여성기업’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본격 막을 올렸다. 기업인으로서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김연선 대한오케이스틸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은 남미경 한만두식품 대표가 각각 수훈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일 저녁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5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법정 행사인 여성기업 주간은 매년 7월 첫째주에 열린다. 행사 주관은 여경협을 포함해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함께 한다.개막식에는 조정식 국회의장, 남인순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이달근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 정·재계, 여성기업인등 약 500명이 자리했다.

국회의장이 여성기업주간 개막 행사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작년에는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참석해 여성기업인들과 자리를 함께 한 바 있다.

이날 개막식 오프닝은 여성기업 펠스나인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AI 아이돌 ‘이터니티’가 환영인사를 전해 색다른 경험을 줬다.

박창숙 여경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수

많은 여성기업인이 각자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기술과 혁신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의 속도가 아니라 ‘그 기술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이며 그 해답은 바로 여성기업에게 있다”면서 “여성기업은 생활속 불편과 시대의 흐름을 섬세하게 포착하고 그 문제를 기술로 풀어내며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가고 있다. 빠른 기술을 넘어 바른 기술로, 모두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여성기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탑훈장을 수훈한 김연선 대표는 지난 47년간 오직 철강 외길만 걸은 여성기업인으로, 냉연 철강재 제조 및 유통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제조 기반을 충남 당진과 경남 김해 등 지방 거점으로 확장함으로써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업적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은탑훈장을 받은 남미경 대표는 술한 역경을 딛고 일어난 ‘보험왕’ 출신 여성기업인이다. 대기업 위주의 냉동만두 시장에서 갈비만두, 주꾸미만두 등 고정관념을 깨는 이색적인 제품군을 잇달아 흥행

시키며 기업을 성장시키고 다양한 가족친화적 행복 일터를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 산업포장 1점, 대통령 표창 4점, 국무총리 표창 7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진행했다.

이병권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타인의 감정을 섬세하게 읽고 소통하는 능력이 기업의 최종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는 우수한 기술력과 공감적 리더십을 갖춘 여성기업인들이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경청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막식에서 진행된 W-인사이트 스피치’에선 기술로 일상과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장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두 여성 창업자인 허드슨AI 신현진 대표와 이너시아 김효이 대표가 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또 행사장 로비에는 펠테크, 바이오, 돌봄, 안전, 문화, 콘텐츠 등 기술에 감성을 더한 전시 부스도 마련해 참석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bada@metroseoul.co.kr



metro

에코프로, 유증 부담에도 인니 니켈 투자속도

BNSI 제련소 지분 39% 확보
연 9만톤 니켈 수급권 기반
원료·재활용 순환구조 구축

에코프로가 유상증자 추진에 따른 투자자 우려 속에서도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규모 자금 조달 부담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니켈 수급권 확보 없이는 양극재 원가 경쟁력과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 강화에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 그룹은 인도네시아 IGIP 산업단지에서 건설 중인 BNSI 제련소 지분 39%를 확보해 대주주로 참여한다. 에코프로는 이번 투자를 통해 연간 9만톤 규모의 니켈 생산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양극재 사업의 원

료 조달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에코프로가 유상증자 부담에도 BNSI 투자를 추진하는 것은 니켈 조달 경쟁력이 배터리 소재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니켈 수급권을 확보해야 양극재 원가 부담을 낮추고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중국은 완성차, 배터리 셀, 배터리 소재, 핵심 광물물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구축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왔다. 반면 한국은 배터리 셀과 소재 경쟁력은 갖췄지만 니켈 등 핵심 광물 조달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광물자원공사 개발지원본부장을 지낸 강천구 인하대 교수는 “하이니켈 배터리를 채용하는 한국 전기차 회사 입장에서

니켈은 핵심 소재인 만큼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 제련소 투자를 통해 확보한 니켈은 전기차 산업 전체의 밸류체인을 강화할 것”이라며 “니켈은 전기차뿐 아니라 스테인리스강, 항공우주·방산용 초합금 등에도 중요한 광물이어서 국가 산업 경쟁력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니켈 투자와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결합해 양극재 중심 사업 구조를 확장하고 있다. 2020년 포항에 리튬 가공, 전구체, 양극재, 리사이클링으로 이어지는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인도네시아 제련소 투자를 통한 ‘자연광산’과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도시광산’을 결합하면 원료 확보부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순환형 사업



현재 건설 중인 인도네시아 솔라웨시 BNSI 제련소 현장 전경. /에코프로 그룹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최근 중장기 경영전략회의에서 “도시광산과 자연광산을 결합해 2030년에는 에코프로의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가 구축될 것”이라며 “양극재 제조만 하는 에코프로비엠은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시멘트협회-KCL 저탄소 시멘트 개발 품질관리 체계 강화

한국시멘트협회가 친환경 저탄소 시멘트 기술 확보를 통해 위기 돌파에 나선다. 한국시멘트협회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KCL에서 ‘시멘트산업 저탄소 전환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시멘트산업의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공동 발굴·수행 ▲신공정·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 기술 개발과 표준화 협력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AI/AX(AI Transformation) 기반의 시멘트 품질관리체계 구축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김승호 기자

LS마린솔루션, 차세대 포설선 건조 착수

HVDC·해상풍력 시장 대응

LS마린솔루션이 차세대 해저케이블 포설선 건조에 착수하며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해상풍력 전력망 시장 공략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포설선을 추가로 확보해 서해안 HVDC 에너지고속도로 등 대형 해저 전력망 사업 대응력을 높이고 미국 해저케이블 생산법인 LS그린링크와 연계한 해외 시장 확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LS마린솔루션은 튀르키예 테르산 조선소에서 차세대 해저케이블 포설선 건조 착수를 알리는 강제 절단 행사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강제 절단은 선박 건조의 첫 단계로, 본격적인 제작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이번 포설선은 지난해 5월 투자 계획이 발표된 선박으로, 약 1년간 설계와



김병욱 LS마린솔루션 대표(왼쪽부터), 누레틴 파수(Osman Nurettin Paksu) 테르산 조선소 대표, 이근창 LS마린솔루션 통신사공지원부 문장이 신규 포설선 착수 기념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S마린솔루션

제작 준비를 거쳐 건조에 들어갔다. 2028년 상반기 인도를 목표로 하며 HVDC와 해상풍력 전력망 등 장거리·대규모 해저케이블 시공에 특화된 전용 선박으로 제작된다.

/원관희 기자

SK지오센트릭, 중소 고객사 폴리머값 인하

PE·PP 등 톤당 최대 20만원 낮춰

SK지오센트릭이 중소 고객사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 폴리머 제품 공급가를 낮춘다. 정부의 나프타 수급 안정화 지원 정책과 연계해 석유화학 제품 가격 부담을 줄이고 내수 시장 회복을 뒷받침 하려는 취지다.

SK지오센트릭은 중소기업 고객사에 공급하는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등 폴리머 제품 가격을 톤당 최대 20만원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공급가 인하는 6월 출하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리머 제품은 포장재, 생활용품,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 쓰

이는 기초 소재인 만큼 공급가 인하가 고객사의 원가 절감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격 조정은 정부의 나프타 수급 안정화 정책과도 맞물려 추진된다. 정부는 석유화학 기업을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계약 물량에 대해 전정 이전 가격 대비 상승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SK지오센트릭은 이번 납품가 인하를 통해 정부 지원 효과가 실제 수요 기업과 석유화학 제품 시장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SK지오센트릭 관계자는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고객사의 부담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 방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중기중앙회-기정원 중소 제조AI 상용화 870억 투입 본격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중소기업 인공지능(AI) 제조혁신을 위해 손을 잡았다. 중기중앙회는 기정원과 ‘제조분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운영관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중소 제조기업 AI 전환 지원사업으로, 36개 과제에 올해와 내년에 총 87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산업 안전 및 공정·경영 혁신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을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지원사업 과제 관리 ▲ 뿌리업종 및 협동조합 과제 현장안착 지원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2026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2026년 7월 6일 ~ 2027년 1월 7일



모집 개요

과정명: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교육기간: 2026년 7월 6일 - 2027년 1월 7일
교육시간: 월~금, 09:00 ~ 18:00
교육장소: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교육원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메타빌드 제2사옥 4층
상담 문의: 010-5155-8299

지원 자격 및 혜택

학력·전공 무관! 비전공자 및 인문계열도 기초부터 입문 가능
우대 사항: Python, Java 등 프로그래밍 기초 수강생 우대
추천 대상: IT/빅데이터/AI/ITS/데이터엔지니어 직무 취업 희망자
교육비 혜택: 총 수강료 40만원(훈련장려금 매달 수령 가능)

주요 교육 내용

총 1,000시간 중심의 실무 및 프로젝트 교육

AI 서비스 연계기술(ESB/API/MCP/A2A), Node.js/Express 기반 웹 응용
Python/JAVA/바이트코딩 기반 데이터 분석, RESTful API 설계
React 기반 프론트엔드 개발, 데이터베이스 및 GIS 기반 데이터 처리
생성형 AI·GPT·LLM 실무 교육, 디지털트윈 서비스 구현 등

신청 및 문의

신청방법: 메타빌드 AI·클라우드·데이터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
* 산대특 4기 - 홈페이지 신청 (QR코드 연계)



수업과정
상세보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자 요약하고 일정 관리까지” ‘에이닷’으로 생활 편리 더한다

SKT, 고객센터 연결 편의 높여
‘에이닷 노트’ 정식 서비스 전환
유료화보다 시장 선점 속도 조절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서비스 ‘에이닷’을 통신 기반 생활형 AI 에이전트로 확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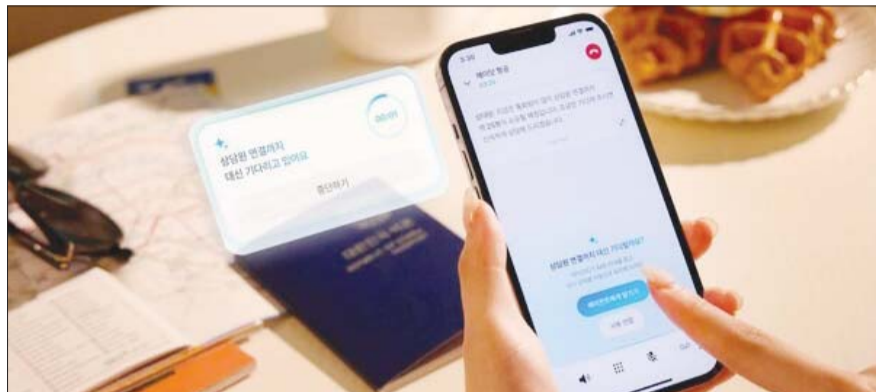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이용 고객들은 AI 에이전트 기능을 강화한 ‘에이닷’을 이날부터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고객 센터·메시지·일정 관리 등에서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에이전트콜’을 통해 고객센터 연결 편의를 한층 높였다. 이용자가 ARS 안내를 듣고 번호를 기억해 상담원 연결까지 기다리는 기존 구조에서 상담원 연결 대기가 길면 AI 에이전트가 대신 기다렸다가 연결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메시지 관리도 스팸·피싱 의심 문자에서 전 영역으로 넓혀 문자 핵심 내용 요약·일정 연동 등으로 확대했다. 예약 문자를 받으면 일정, 위치, 링크가 에이닷 앱 일정에 기록된다.

이 밖에 쿠폰 문자는 유효기간과 쿠폰 번호를 따로 저장할 수 있어 편의성을 높였다. 새롭게 추가된 ‘할일 탭’은 이용자가 등록한 내용과 관련된 부수적인 할 일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준다.

최근에는 AI 회의록 서비스 에이닷 노트를 정식 서비스로 전환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베타 출시 이후 약 1년 만이다.



SK텔레콤이 인공지능 서비스인 ‘에이닷’의 기능을 향상시켜 AI 에이전트로 적용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업데이트된 ‘에이닷’의 사용 모습. /SK텔레콤

음성을 실시간으로 받아쓰고 회의 내용을 요약해주는 이 서비스는 베타 출시 일주일 만에 누적 사용자가 30만명에 달했다.

이는 에이닷을 AI 비서에서 생활형 AI 에이전트로 확장해 생활 전반에서 고객과 접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은 2022년 캐릭터와 대화하는 서비스로 에이닷을 출시하고 이듬해 개인화 전략을 내세워 AI 비서 앱으로 고도화해왔다. 지난해에는 에이닷 노트 등 베타 서비스를 선보여 업무 영역으로 범위를 넓혔으며, 한국어 특화 거대언어모델(LLM) A.X 4.0과 챗GPT-5 등을 추가해 워크플로우 기능을 강화했다.

이처럼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확장이 유리한 이유로는 고객과 전화·문자 등 기본 통신 접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의 AI 영역에서 단일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네이버의 ‘클로버노트’와 달리 에이닷 노트는 회의 내용을 통화문자를 통해 얻는 일정 정보와 연계하기가

수월하다.

에이닷 업데이트는 SK텔레콤이 유료 전환보다 시장 선점을 위한 속도 조절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지난해 9월부터 에이닷 노트 등을 부분 유료화하면서 거론된 유료 모델 전환 계획은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한 상태다.

이는 고객들의 반복적인 경험과 높은 만족도가 유료로 지불 의사로 이어지는 만큼 효용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에이닷 노트를 정식 서비스로 전환한 이후에도 무료 정책을 유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에이닷 유료화를 두고 정석근 CTO는 올해 초 스페인에서 열린 ‘MWC 26’에서 “현재 보유한 인공지능(AI) 기술을 바탕으로 유료 수준의 성능까지 낼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고

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민선 기자

mso@metroseoul.co.kr



metro

LTE·5G 통합 요금제 실시 KT, 연령별 데이터 혜택 확대

요금제 100여종서 18종으로 축소
데이터 소진後 웹서핑·메신저 가능
청년층에 데이터 2배 제공 등 혜택

KT가 1일 5G·LTE를 통합한 요금제를 새롭게 출시했다. 이날부터 기존 5G 및 LTE 요금제는 신규 가입이 중단된다.

이번에 개편한 통합요금제는 기존 요금제 100여종에서 18종으로 줄이고 연령별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는 ‘덤’ 서비스를 도입했다. 데이터를 전부 소진하고도 간단한 웹서핑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 옵션(QoS)도 적용했다.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초이스·베이직으로 나뉜다. 초이스 요금제는 완전 무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유 데이터를 확대한 특징이다. 예를 들면 초이스 110·90 요금제는 공유 데이터가 각각 80·60GB 수준으로, 스마트 기기에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초이스 130 요금제는 최대 2회선까지 스마트 기기에 대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OTT, 폰케어, 디바이스 할인 등 혜택을 선택하는 등 이용 패턴에 맞춰 요금을 설계할 수 있다. 초이스 더블 요금제는 디즈니 플러스 스탠다드, 단말 보험 할인을 동시에 제공한다.

이번 요금제 개편의 핵심은 데이터 안심 옵션(QoS)으로,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구분한 베이직 요금제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전 구간 QoS를 적용하고 공유 데이터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데이터가 소진된 이후에도 사용이 중단되는 불편을 줄이고 웹서핑,



KT가 5G·LTE를 통합한 요금제를 새롭게 출시했다.

메신저 등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을 지속할 수 있다. 베이직 110GB 요금제는 최대 5Mbps 속도로 사용할 수 있다. 베이직 10GB 요금제 이하는 400Kbps 속도를 제공한다.

연령별 혜택도 자동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베이직 30GB 요금제를 이용하는 20대 고객에는 Y덤을 적용해 데이터 제공량이 60GB로 늘어난다. 월 10GB 요금제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시니어 고객의 경우 최대 15GB까지 확대된다.

연령별 덤 혜택은 청년층은 데이터 2배를 제공하는 Y덤, 어린이는 스쿨덤, 시니어 고객은 65 플러스 덤, 75 플러스 덤 등이다.

군 장병에게는 복무 기간 Y덤 혜택과 매일 2GB 데이터를 제공한다. 단 추가 데이터 제공은 월 4만5000원 이상 요금제에서 가능하다.

KT는 통합요금제 출시를 기념해 고객 참여형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메가커피, 신세계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조민선 기자

NC AI, 글로벌 3D 생성 AI 시장 공략

‘바르코 3D 2.0’ 공개
실제 제작 공정 전반에 적용

NC AI가 맞춤형 제작 공정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바르코 3D 2.0’을 공개하며 글로벌 3D 생성 AI 시장 공략에 나선다.

NC AI는 3D 생성 AI 서비스 ‘바르코(VARCO) 3D 2.0’을 1일 공개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단순히 3D 모델을 생성하는 기능을 넘어 실제 제작 공정 전반에 AI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핵심 기능인 ‘커스텀 워크플로’를 통해 사용자는 이미지 생성, 3D 생성, 텍스처 변환, 후처리 등을 자유롭게 조합해 프로젝트 목적에 맞는 제작 공정을 설계하고 저장·재사

용할 수 있다. 팀원 간 워크플로 공유도 가능해 협업 효율도 높였다.

생성 성능도 개선됐다. 입력 이미지의 형상과 비례를 안정적으로 반영하고 최대 4K 텍스처를 지원해 세부 디테일과 재질 표현력을 높였다. 회사 측은 형상 유사도 평가 지표인 ‘유니3D’ 등 주요 벤치마크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성능을 기록했으며, 글로벌 3D 생성 AI 서비스와 비교해 원본 형상 유지력과 텍스처 품질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NC AI는 향후 AI UV 언랩 기능과 ‘바르코 3D 2.0 울트라’ 모델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피지컬 AI와 디지털 트윈 등 산업 분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



NC AI가 최신 SOTA 모델 기반 바르코 3D 플랫폼 업그레이드 했다. /NC AI

이다.

이연수 NC AI 대표는 “바르코 3D 2.0은 실무자들의 3D 콘텐츠 제작 파이프라인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며 “고품질 3D 애셋 제작의 표준을 제시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따능스쿨, AI 그림강의 수강생 2000명 돌파

생성형 AI 플랫폼 ‘따능AI’ 활용

AI(인공지능) 예술 교육기업 따능스쿨은 자사 AI 그림 강의의 누적 수강생이 2000명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강의는 한국어 프롬프트를 활용해 그림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미술 전공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인과 주부, 시니어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AI 그림 제작 기초를 교육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교육에는 따능스쿨이 개발한 생성형 AI 플랫폼 ‘따능AI’가 활용된다. 따능AI

는 한국어 입력만으로 그림과 영상, 음악, 효과음, 음성 등의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소프트웨어(SW) 품질 인증인 GS(굿 소프트웨어) 1등급을 획득했다.

따능스쿨은 2023년 AI 예술 교육을 시작해 입문 과정부터 창작, 자격 과정까지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따능스쿨 관계자는 “AI를 처음 접하는 이용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 특강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민 수습기자 kbm@

SKB “종편부터 지상파 3사 콘텐츠까지”

‘B티비 플러스 맥스’ 구독상품 선배

SK브로드밴드는 월 정액 구독상품 ‘B티비 플러스 맥스’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출시 배경은 최근 다수의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를 구독하는 ‘스트림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높아진 데 있다.

‘B티비 플러스 맥스’는 기존 상품인 ‘B티비 플러스’에 지상파 3사 콘텐츠를 추가한 특징이다. 종편 4사와 함께 케

이블, 영화, 키즈, 애니, 다큐 등 약 30만편 이상의 국내외 콘텐츠가 함께 제공된다. 이에 따라 실시간 채널 255개를 한번에 시청할 수 있다.

고객 편의성도 높였다. TV 전원을 켜면 전용 홈으로 즉시 연결돼 추가 결제 없이도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최대 4대의 모바일 B티비 앱으로도 시청 가능하다.

SK텔레콤 이동전화 등 결합 상품을 3년 약정 조건으로 구독하면 월 2만2000원

에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구독 상품보다 최대 78% 저렴한 수준이다.

이번 구독 상품 출시를 통해 이용자들은 여러 플랫폼을 오가는 번거로움을 덜고 구독료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출시 기념 이벤트도 연다.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대한항공 100만원 기프트카드, 롯데호텔 숙박권,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투썸플레이스 커피 쿠폰 등을 증정한다. 기간은 오는 9월 말까지다. 한편, VOD 월정액 구독상품 ‘B티비 프릭스’는 2024년 7월 출시 이후 가입자가 70% 이상 증가했으며, 시청 시간도 56% 이상 늘었다. /조민선 기자

카카오, 디지털 플랫폼 일상혁신 연구지원

선정 과제에 2000만원 연구비

카카오는 디지털 플랫폼이 이용자와 비즈니스 파트너에 미치는 영향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6 디지털 플랫폼의 일상혁신 연구지원’ 공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이용자의 일상 혁신을 주제로 진행한 데 이어 올해는 창작자와 소상공인, 기업 등 비즈니스 파트너의 성장과 플랫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연구 대상은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카카오그룹의 주요 플랫폼 서비스다. 경영·경제·사회·심리·교육·디자인·공학 등 분야 제한 없이 연구 제안을 받으며, 선정 과제에는 각각 2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내외 학술지에 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다. 접수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며, 연구 주제의 독창성과 연구방법의 적절성, 기대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최빛나 기자

국민연금 주식 리밸런싱... 폭탄 아닌 완만한 조정 '무게'

목표비중 초과해 매도 필요성 커져 코스피 9000일 때 최대 74조 매도 리밸런싱 기간 늘려 시장 충격 최소화



ChatGPT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개인 투자자 직장인 김모(31)씨는 1일 오전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 조정에 다시 나설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고민에 빠졌다. 상승 곡선을 그리는 주가를 보면 돈을 더 넣고 싶지만, 큰 손연기금이 주식을 팔면 수익률이 떨어질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서다. 김씨는 삼성전자 주가가 한창 오르던 2021년 초 '9만 전자'에 올라탔지만, 이후 기약 없는 하락장에 5년을 버텼었다. 김씨는 "여기저기서 반도체가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해서 일단 들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시장에 폭탄을 던지지 않을까 싶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행보에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일부터 국내주식 비중 조정(리밸런싱)에 다시 들어가 때문이다. 국내 증시 급등으로 국민연금이 팔아야 할 국내주식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만큼 시장에 긴장감이 돈다. 외국인마저 두 달 연속 사상 최대 규모로 국내주식

을 팔아치우고 있어 매물 폭탄이 현실화한다면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코스피 1만 땀 국민연금 120조 폭탄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6월 한 달간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3370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연기금 수급 흐름을 보면 지난 2~4월까지 월간 순매도 규모가 1조원 미만이었으나 지난 5월에는 2조1620억원, 6월에는 2조3370억원으로 규모가 급증했다.

시장에서는 전날 자산배분 리밸런싱 유예가 끝나면서 국민연금만 쳐다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중장기 자산배분 계획에 따

라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관리한다. 특정 자산에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고, 기금 전체의 위험을 분산해 장기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올해 국내 증시 급등으로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크게 웃돌자 국민연금은 지난달 말 올해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상향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은 여전히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피 8500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은 29.6%가 된다. 코스피 9000에 오르면 이 비중은

30.8% 수준으로 높아진다. 국민연금이 가장 최근에 집계한 지난 4월 말 기준 25.1%보다 5.7%포인트가량 높고, 새 목표 비중인 20.8%를 10%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신영증권은 코스피가 9000선에 오르면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을 최대 74조 4000억원가량 팔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전술적자산배분(TAA)을 안쓰고 전략적자산배분(SAA)만 쓴 경우로 추산했다.

코스피가 1만까지 오른다면 국민연금은 시장에 폭탄이 된다. 최대 팔아야 할 주식 120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오버웨이트 상태인 만큼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과정에서 연기금의 매도 압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기금의 순매수 업종도 7개로 축소됐고, 외국인과 연기금이 동시에 순매수한 업종은 보험·건설·운송에 너지은행 등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완만한 조정 예상

시장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당장 초과분을 처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유연한 자산 운용을 위해 국민연금은 전략적 자산배분(SAA·±6%포인트)과 전술적

자산배분(TAA·±2%포인트) 허용 범위를 두고 있다. 이를 최대로 끌어다 쓰면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비중을 최대 28.8%까지 들고 갈 수 있다.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거래일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었다. 국민연금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분할 매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주가 상승세가 이어져 매도 필요 규모가 증가할 수록 리밸런싱 속도를 늦추고 연말 국내주식 비중 추가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 내 '매도 폭탄' 우려가 확산하자 국민연금은 직접 진화에 나섰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약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에 들어가더라도 폭탄'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며 "5월 기금위에서는 리밸런싱 규칙을 바꾸면서 점진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시행하도록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전략은 주가수준뿐 아니라 채권, 대체 등 다른 자산의 수익률, 주가변동성, 금리, 환율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정은보 "우량기업 키우고 한계기업 속아낸다"

(거래소 이사장)

30년 맞은 코스닥, 체질 개선 속도 상폐 강화·세그먼트 도입 등 개편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우량기업은 키우고 한계기업은 과감히 퇴출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를 통해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1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코스닥 시장 개설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코스닥 시장은 지난 1996년 7월 1일 개장한 뒤 양적·질적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당시 341개사에 불과했던 상장사는 지난해 기준 1827개사로 증가했고, 시가총액도 7조원에서 580조원까지 늘어났다.

이날 정 이사장은 "30년 전인 1996년 시작된 코스닥 시장은 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 속에서 벤처라는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출범했다"며 "그 결실로 1997년 외환위기 속에서도 벤처캐피털(VC)의 꿈을 이끌며 혁신 성장의 싹을 키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례 없는 자본시장 상황에서 중소 벤처기업과 대기업, 코스닥과 코스피의 선순환 동반 성장 유도가 안 되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코스닥 시장 개설 3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고 있는 것 같다"며 "우량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한계기업은 즉시 속아내는 '다산다사' 구조를 통해 코스닥을 신뢰받는 시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부실·한계기업을 조기 퇴출해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인공지능(AI)·방산 등 혁신기업의 적기 상장을 위해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확대하며 ▲승강형 세그먼트를 도입해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을 차별화하는 시장 구조 개편 등을 언급했다.

이날부터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강화조치가 적용된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시

가총액 기준이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아지며,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도 퇴출된다. 더불어 내년 1월부터는 시가총액 기준이 다시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시장은 승강형 세그먼트 도입을 주목하고 있다. 승강형 세그먼트 구조에서 코스닥 시장은 기업 경쟁력에 따라 '프리미엄' (시총 상위 혁신 기업)과 '스탠더드' (성장 중인 기업)으로 나누게 된다.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코스닥시장 개장 30주년을 맞아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자 혁

신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나아갈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닥 세그먼트 승강제 도입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성장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건강한 역동성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형 기업금융(IB)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2조원 이상의 세컨더리 펀드 조성으로 회수시장을 활성화해 투자와 회수,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 확대 구상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의 미래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코스닥의 체질 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확대·개편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무제한의 신고포상금 등 보다 효과적인 불공정거래 적발체계를 바탕으로 이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코스닥의 30주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첨단·혁신산업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후 1일부터 3일까지 한국IR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코스닥 컨퍼트(CONNECT) 2026'을 진행한다. /신하은 기자

기업 신용등급 '희비' 방산 웃고 2차전지 울고

나이스신용평가 보고서

올해 상반기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이 상향된 기업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스신용평가는 1일 내놓은 '기업 부문 2026년 상반기 신용등급 변동과 하반기 방향성'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신용등급(장단기 신용등급 및 등급전망 기준) 상향 조정은 32건, 하향 조정은 37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향 조정 26건, 하향 조정 38건과 비교하면 하향 조정 우위는 지속하되 상향과 하향 간 격차는 줄어들었다.

신용등급 또는 등급 전망 상향 조정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자동차부품(4개)이었고, 방산·조선(각 3개), 전력기·발전·식품(각 2개)이 뒤를 이었다.

하향 조정이 다수 발생한 업종은 2차전지(6개), 건설·의류·자동차부품(각 3개), 석유화학(2개) 순이었다.

보고서는 "반도체, 방산, 조선, 전력기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가운데 신용등급 하향 압력이 가장 높았던 석유화학 업종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이후 실적이 일시적으로 반등하며 하향 조정이 소폭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역레깅 효과로 인해 석유화학사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일부 생산설비가 훼손돼 복구 완료 전까지 공급 차질이 이어질 수 있을 때"라고 분석했다. 레깅 효과는 원재료를 매입한 시점과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 사이의 시차 때문에 원재료 가격 변동이 실적에 뒤늦게 반영되며 이익이 일시적으로 확대·축소되는 현상을 말한다.

신용등급 또는 등급전망 상향 조정이 다수 발생한 그룹은 HD현대 [267250] (4개), 삼성·LS·한진·두산(각 2개)이었다. 하향 조정이 가장 많이 발생한 그룹은 롯데(4개)였고, SK(3개)와 중앙(2개)이 뒤따랐다. /허정윤 기자

서학개미, AI 메모리·반도체로 귀환

해외주식 Click

마이크론·메모리 ETF '집중 매수'

국내 투자자(서학개미)들이 지난 일주일간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AI) 메모리와 반도체 관련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주 투자 열풍을 이끌었던 스페이스X 대신 마이크론과 메모리 ETF, 반도체 레버리지 ETF가 순매

수 상위권을 차지하며 AI 반도체 업종 전반으로 투자심리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 따르면 지난 한 주(결제 기준 6월 23~29일)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1위는 마이크론으로 집계됐다. 순매수 규모는 3억126만달러였다. 이어 라운드힐 메모리 ETF(2억849만달러), 인텔(1억3406만달러), 마이크론 2배 레버리지 ETF(DXN MU Bull 2X ETF·1억1653만달

리가 뒤를 이었다. 스페이스X 2배 레버리지 ETF(SPCX)는 1억709만달러로 5위에 올랐으며 SOXL과 샌디스크, TQQQ, TSMC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메모리 기업과 메모리 ETF, 반도체 레버리지 ETF, 파운드리 기업까지 AI 반도체 생태계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된 점이 눈에 띈다. 직전 주 스페이스X 상장에 집중됐던 투자자금이 다시 AI 메모리와 반도체 업종으로 분산되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자리하고 있다. 마이크론은 지

난달 25일(현지시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026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HBM(고대역폭메모리)을 중심으로 한 AI 메모리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실적 발표 이후에는 마이크론뿐 아니라 SOXL과 SOXX 등 반도체 ETF, DRAM 2배 레버리지 ETF까지 순매수 상위권에 오르며 투자자들이 개별 기업보다 업황 전반의 회복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 나타났다.

반면 직전 주 순매수를 주도했던 스페이스X는 투자 우선순위가 다소 뒤로 밀렸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원스토어 차단’ 구글, 8496억 과징금 폭탄 위기

공정위, 구글에 심사보고서 송부
앱마켓서 게임사 이탈 막기 위해
최혜대우·누진적 지원 계약 체결
법 위반 판정 시 매출 6% 과징금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대형 게임사들을 포섭해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 등으로의 이탈을 막은 구글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 매출액이 약 14조원에 달해, 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과징금 상한액 적용 시 최대 8496억원의 역대급 과징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아시아퍼시픽(싱가포르), 구글코리아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과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피심인(구글) 측에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4년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의 신고로 시작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구글은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에 반발한 게임사들이 구

글 앱마켓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과 이른바 ‘GVP(Game s/Google Velocity Program, 일명 ‘Project Hug’)’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대상에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를 비롯해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구

글 앱마켓 매출 최상위권에 포진한 대형 게임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 계약의 핵심은 ‘최혜대우’와 ‘누진적 지원’이다. 게임사가 신작 게임의 출시 시기가나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구글에 유리하게, 혹은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조건을 걸었다. 구글은 그대가로 클라우드, 애즈(광고), 유튜브 등 자사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대 줬다. 특히 구글 앱마켓의 매출액이 증가하면 구글이 지원하는 금액도 함께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를 설계해 게임사들을 유인했다.

심사관은 구글 측이 GVP의 최혜대우 조건과 누진적 지원방식 등을 통해 게임사의 경쟁 앱마켓 입점 유인을 현저히 저해함으로써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구글과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는 판단이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가장 문제되는 것은 GVP 계약의 내용으로 최혜대우 조건을 부가했다는 점”이라며 “누진적 구조로 설계돼 그 효과가 더 커진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의 행위를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중 ‘사업활동방해 행위’와 ‘배타조건부거래행위’ 등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총 92억1777만달러(약 14조 1600억원)로 산정했다.

향후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법 위반 판정이 내려지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 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8496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조사 단계에서의 조치 의견일 뿐, 최종 제재 수위는 법관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의 합의를 거쳐 결정된다.

구글 측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박균배 한국중부발전 디지털처장(왼쪽)이 ‘2026 대한민국 혁신대상’에서 AI 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중부발전

중부발전 ‘하이코미’ 도입으로 AI 혁신부문 대상

표준협회 주관 ‘대한민국 혁신대상’

한국중부발전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사적 업무 혁신 성과를 인정받으며 국내 최고 권위의 혁신 기술 시상식에서 시상대 맨 위에 올랐다.

중부발전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6 대한민국 혁신대상’에서 AI 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플랫폼인 ‘하이코미(HI-KOMI)’를 도입해 전사적인 업무 혁신과 인공지능 전환(AI)을 안정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인 발전소는 데이터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부발전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외부 클라우드와 완전히 분리된 자체 폐쇄망 환경에 ‘하이코미’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발전소 고장·정비 사례, 전문 기술 보고서 등 사내 핵심 데이터 약 100만 건을 외부 유출 우려 없이 안전하게 학습시켰으며, 강력한 데이터 보안 속에서 대형언어모델(LLM)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부산항 크루즈 방문객 年 100만명 목표”

부산항만공사, 모항지 전환 방침
체험 프로그램으로 저변 확대
지역기업-글로벌 선사 연결도



부산항에 접안 중인 크루즈선 /BPA

부산항만공사(BPA)가 연간 100만 명의 부산항 크루즈 방문객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부산항을 기존의 기항지(배가 잠시 거처가는 곳) 중심에서 모항지(여행 출발·최종 도착지)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사는 최근 발표한 ‘2030 부산항 크루즈산업 활성화 계획’에서 ▲크루즈 유치 ▲국내 저변 확대 ▲연관산업 활성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우선 크루즈 유치 분야에서는, 단순 기항 중심에서 벗어나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물고 부산에서 출발하는 ‘모항’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내한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서울을 관광하고 KTX를 이용해 부산으로 이동한 뒤, 부산항에서

크루즈를 승선하는 항공·철도 연계 모항 상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저변 확대를 위해 여행업체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크루즈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국제행사와 연계한 맞춤형 포트세일즈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내 1·2위 크루즈 항만인 부산과 제주의 동시기항 상품을 개발하고 공동 마케팅을 활성화한다.

연관산업 활성화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전국 크루즈 선용품 선적실적 가운데 75%가량이 부산항에서 공급됐다. 이에 지

역기업과 글로벌 선사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상담회 확대, 해외 판로개척 지원, 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크루즈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크루즈선 203항차·25만7000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부산항을 찾았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19항차·32만여 명이 방문했다. 올 연말에는 총 420항차·약 70만 명이 다녀갈 것으로 공사는 전망했다.

이러한 증가세를 일시적 호황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

기 위해 이번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비전은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크루즈 허브 육성’이다. ▲2030년까지 크루즈선 520항차·관광객 100만 명 달성 ▲대한민국 대표 크루즈 모항 기반 구축 및 연관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BPA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크루즈 시장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새로운 성장기에 진입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사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맞춰 글로벌 선사를 대상으로 한 포트세일즈 확대,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터미널 운영체계 개선, 모항 기반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부산 CIQ기관은 초대형 크루즈선 입항 시 5000명 이상 승객의 승·하선을 2시간 이내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사는 CIQ기관과의 협의회에 24시간 터미널 운영, 면세·환급 서비스, 선박 전자검역 도입 등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를 적극 개선해 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평가 ‘A등급’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

국가 자원순환 대표기관 역할 확대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해당 연례 평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국가 자원순환 대표기관으로의 역할 확대를 위한 경영 기반 정비를 높게 평가 받았다. 또 친환경 매립을 비롯해 자원순환 고도화, 환경명소화, 온실가스 감축 등 기관 고유사업 전반에서 성과를 창출한 점도 우수 등급 획득에 기여했다.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중장기 경영전략을 정비·재재화하고 안전경영체계 구축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19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주요사업 부문에서는 친환경매립, 자원순환체계 고도화, 환경명소화 사업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친환경매립 부문에서는, 폐기물 반입량 감소 등 여건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매립장 운영과 환경관리 추진으로 환경민원 2년 연속 제로를 달성했다. 또 국가 핵심기반시설 재난관리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상과 순환골재 우수활용사례 선정 등을 통해 친환경·안전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미수혜 고객 직접 발굴·지원

한국전력이 소외계층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몰라서 못 받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에 본격 나선다. 복지부·국가보훈처 등 유관기관 정보와 연계해 미수혜 고객을 직접 발굴·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1일 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 복지할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에는 할인 한도가 확대돼 월 최대 2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만 397만 고객이 총 7141억원(1인 연평균 약 18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한전은 적극적

인 현장 발굴을 통해 최근 3년간(2023~2025년) 8만 5000 고객을 새로 찾아내 혜택을 제공했다.

아울러 한전은 폭염기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용 주택, 소상공인,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요금을 2~6개월간 나누어 내는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도 함께 시행 중이다. 복지할인 및 분할납부 신청은 한전의 에너지절약 플랫폼인 ‘슬기로운 전기생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발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6시간 야외활동 후, 피부는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 더 우아한 선케어
골프, 여행 등 야외 활동을 위한 초슬림 투명 UV패치



세계 100대 골프 코스,
엄격한 제품 선별 기준의
해슬리 나인브릿지에
국내 유일 입점

- # UV-A 98% / UV-B 99% 차단
- # 광대까지 커버되는
88mm x 60mm 대형 패치
- # 접착제 없이 편안한 밀착
- # 자외선 차단 + 피부 보습 케어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슬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함평군, 빛그린산단 중심 첨단산업 육성... 반도체 허브 도전

교통망·인프라 등 강점 내세워 RE100 시범산단 지정 등 추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



함평군 빛그린국가산단 조감도

/함평군

함평군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으로 빛그린국가산단지구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AI 기반 첨단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이에 전남 함평군이 미래 산업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함평군에 따르면 빛그린국가산단을 반도체 관련 첨단산업과 제조기업 유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RE100 산업단지 조성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공급 체계 구축 ▲미래차·AI·반도체 연계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광주·전남권 첨단산업의 중심축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빛그린국가산단은 함평군 월야면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걸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전체 면적은 약 400만㎡다. 이 가운데 함평 지역은 전체 면적의 54.7%인 약 220만㎡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 확장성과 대규모 기업 유치 측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빛그린국가산단에는 금호타이어 등 앵커기업이 입주해 공사를 추진 중이며, 함평군은 이를 기반으로 RE100 시범 산업단지 지정과 추가 산업유치 확보를 통한 100만 평 규모의 산단 확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빛그린국가산단 함평권역은 반도체산업의 핵심 입지 조건인 전력, 용수, 교통, 인력, 정수 여건을 두루 갖춘 최적지로 평가된다.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으로는 태양광·풍력 등을 활용

한 전력 확보가 가능하고, 광역 상수계통과 지역 수자원을 연계한 공업용수 공급 여건도 갖추고 있어 첨단 제조기업 유치에 유리하다.

교통 접근성도 강점이다. 빛그린국가산단은 광주송정역까지 10분대 접근이 가능하고 KTX를 통한 수도권 이동 편의성이 뛰어나며, 무안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신항 등 주요 광역 교통망과도 연결되어 있다. 또한 광주의 교육·의료·문화·주거 인프라를 함께

활용할 수 있어 기업 임직원의 정주 여건과 생활 편의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인력 확보 측면에서도 한국에너지공대 및 광주·전남권 대학, 연구기관, 산업지원기관과 연계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하다. 함평군은 향후 광주·전남의 연구개발 기반과 연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공급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함평군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해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산업기반시설 조성, 입주기업 지원 등 제도적 기반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함평군은 대규모 반도체 팹 유치 시 부지매입비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세감면 혜택과 함께 법인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 세수 일부를 반도체산업 육성기금으로 적립해 향후 팹 증설, 기반시설 확충 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함평(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경북도

환경해 글로벌 아카데미 '성과'

경북도는 특성화 지방대학(구 글로벌대학) 및 지역 성장 인재 양성 체계(앵커) 핵심사업인 '환경해 글로벌 연합 아카데미'가 전략산업 인재 양성과 재직자 교육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개소한 아카데미는 전략산업 분야 취업 준비 교육과 재직자 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AI 취업 준비형 교육과정도 신설했다.

최근 3년간 특화인재 507명을 배출해 누적 취업률 72%를 기록했으며, 포스코퓨처엠과 삼성SDS,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등에 인재를 배출했다. /경북=김준하 기자 kih9@

포항시

세계녹색성장포럼 8일 개최

포항시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라한호텔 포항에서 '2026 세계녹색성장포럼(WGGF 2026)'을 개최한다.

'경계를 넘어, 새로운 녹색 미래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후안 베르데 알라모 홀딩그룹 창립자 겸 회장, 짐 스키 IPCC 의장, 이희성 CF연합 회장,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 아비아야 칼 회의 크누센 북극경제이사회(AEC) 의장, 웬용강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 교수,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참석해 녹색 성장과 산업 전환 방안을 논의한다. /포항=김진권 기자 jingon@

전북도

함경남도지사에 진봉현 변호사

전북 출신 법조인 진봉현 변호사(사진)가 차관급 직위인 함경남도지사에 임명되며 지역 사회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정부는 최근 신규 함경남도지사에 전북 지역에서 활동해 온 진봉현 변호사를 임명했다. 전북 출신 인사가 이복5도 위원회 소속 도지사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역 법조계에서도 의미 있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진 신임 지사는 오랜 기간 전북에서 법조인으로 활동하며 공정한 법률 서비스와 지역 사회 발전에 힘써 왔다. /전주(전북)=조계철 기자 chonho89@

경산시

대구한의대한방병원과 의료협약

경산시는 지난 30일 대구한의대한방병원과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산시민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36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대구한의대한방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비와 건강검진비를 15% 감면받는다. 감면 대상은 외래·입원 진료비와 약제비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종합건강검진비다.

경산시는 대학이 보유한 의료 역량을 시민 복지에 활용하고, 글로벌대학 사업과 연계한 지역 상생협력 모델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산(경북)=김진권 기자

충남도, 도시재생 공모 3곳 모두 선정

2개 시·군 3개 대상지 308억 확보 원도심 활성화·정주여건 개선

충남도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신청한 2개 시·군 3개 대상지가 모두 선정되며 국비 308억 원을 확보했다.

충남도는 1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대상지로 천안시 성정지구와 예산군 산성지구가, 인정사업 대상지로 천안시 성황동이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확보한 총사업비는 697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국비는 308억 원이다. 도는 내년부터 원도심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

할 계획이다.

천안시 성정지구에는 총 257억 원을 투입해 도시계획도로와 보행로를 신설·정비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공원, 주차타워를 조성한다. 주택정비 지원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예산군 산성지구에는 251억 원을 들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주민 커뮤니티 복합시설과 공원, 주차타워를 조성한다. 빈집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천안시 성황동에는 189억 원을 투입해 시니어 헬스케어시설과 오픈스페이스, 주민커뮤니티시설, 순환형 공공임대주택, 주차장 등을 조성한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부산시, '2030 APCOT' 개최지 선정

16년 만에 국내서 열려

2030년 아시아·태평양전도체·마이크로노기술 국제대회(APCOT)가 부산에서 열린다.

부산시는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대만 타이중에서 개최된 '제12회 APCOT 2026'에서 제14회 대회 개최지로 부산이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APCOT(Asia-Pacific Conference on Transducers and Micro-Nano Technology)은 센서, MEMS, 반도체, 마이크로노기술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공동 연구와 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2년마다 열리는 학술대회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산 강동해변, 야경 명소 '탈바꿈'

몽돌광장·산책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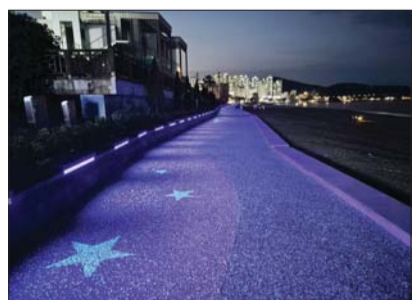
울산시는 북구 강동해변에 파도소리를 들으며 색다른 야간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해안공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154억원이며 지난 2024년 12월 착공해 약 1년 6개월 만에 준공됐다. 7월부터 시민에게 공개한다.

시는 산책로를 당초 계획보다 90m 연장해 총 650m로 확장하고 출입 계단과 사면을 정비해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높였다. 또 누구나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무장애 계단형 스탠드를 설치했다.

산책로 끝에는 공연과 휴식·놀이 공간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몽돌광장을 조성했다. 고래 형상의 전망 공간(고래광장)도 조성해 동해안의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색다른 야간 경관을 즐길 수 있



울산 강동해안공원

도록 해안산책로 바닥에 낮 동안 태양광을 흡수한 뒤 밤에 빛을 내는 축광식으로 포장해 마치 은하수 길을 걷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새로운 사진 촬영 명소이자 야간 경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안공원 조성에 맞춰 관광 기반시설 확충도 추진된다. 약 20억원을 들여 연면적 273㎡ 규모의 '여행자안내센터(트래블라운지)'를 신축할 예정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도, 7월 11일 '관광의 날' 제정

2주간 관광주간 운영

경남도가 7월 11일을 '경상남도 관광의 날'로 공식 제정하고, 오는 7월 10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제1회 기념식을 연다. 7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은 '경남관광주간'도 운영한다.

관광의 날은 지난해 7월 11일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인 국도 5호선 사업이 확정된 것을 기념해 지정됐다.

해당 사업은 통영시 도남동에서 남해군 창선면까지 152km 구간을 연결하는 총사업비 2조 4650억 원 규모의 대형 해상 교통망 구축 사업으로, 거제·통영·사천·남해를 하나의 해양관광 벨트로 묶는 게 골자다. 경남도는 올해 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상남도 관광의 날 이미지. /경상남도

경남 관광은 양적·질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관광데이터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방문객은 전년 대비 약 945만 명 늘어난 1억 6668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5월 누적 기준 내국인 관광 소비액이 2조 6255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6% 증가했고, 외국인 방문객은 400만명으로 25.4% 늘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CJ제일제당, 사업구조 전면 개편... 3개 부문 '선택과 집중'

(라이프스타일식품·기술소재·핵심소재)

기존 식품·바이오 중심 구조 탈피
수익·성장성 떨어지는 사업 정리
윤석환 대표 "미래성장 기회 확보"



CJ제일제당 본사 전경. (원형사진) 윤석환 CJ제일제당 대표.

CJ제일제당이 기존 '식품'과 '바이오' 중심의 이원화된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대전환에 나선다.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조와 조직을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조정(리밸런싱)한다는 구상이다.

CJ제일제당은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구조를 해체하고 ▲라이프스타일식품 ▲기술소재 ▲핵심소재 등 3개 사업부문으로 조직을 전면 재편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수익성과 성장성이 떨어지는 한계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선택과 집중 기조를 명확히 했다.

윤석환 CJ제일제당 대표이사는 이번 개편에 대해 "각 사업의 본질과 목적에 맞춘 전략으로 실행력을 높여 미래 성장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사업구조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극대화해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선도

기업으로 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새 체제의 핵심은 각 사업부문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다.

우선 라이프스타일 식품사업부문은 글로벌 K-푸드 센터의 임무를 수행한다. 만두, 치킨, 소스, 김치 등 '비비고'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전략제품(GSP)을 앞세워 전 세계 시장에 한국 식문화의 저변을 넓히는 데 집중한다.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기술소재사업부문은 고부가가치 신시장 개척을 주도한다.

독보적인 R&D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 중인 조미소재 '핵산'과 천연조미소재 '테이스트엔리치(TnR)',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인 'PHA' 등을 주축 삼아 고객 맞춤형 솔루션 사업으로 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핵심소재사업부문'은 기존 사업 간의 시너지를 조율하며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맡는다. 라이신, 트립토판 등 사료용 아미노산부터 설탕·밀가루 등 일반 소재, 알룰로스를 비롯한 신소재까지 원료 사업 전반의 융합을 이끌어 안정적인 수

익구조를 다질 계획이다.

경영진 라인업에는 각 분야에서 역량이 검증된 전문 경영인들을 전면 배치해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했다.

글로벌 K-푸드 확장을 지휘할 라이프스타일 식품사업부문은 30여 년간 글로벌 식품·뉴트리션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이끌어온 전문가 그레고리 옌(Gregory Yep) 대표가 지속해서 맡는다.

고부가 솔루션 사업으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기술소재사업부문은 바이오 사업의 기술 혁신을 주도해 온 윤석환 대표이사직 직접 겸임해 지휘봉을 잡는다.

핵심소재사업부문은 CJ푸드빌의 흑자 전환과 글로벌 성장을 이끌었던 김찬호 전략지원부문 대표가 겸임해 수익성 극대화에 나선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구조 재편은 단순히 조직도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 부문별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결단"이라며 "자원과 역량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폴 바셋 강남점.

엠스씨드 '폴 바셋 강남점' 오픈

매일유업 관계사 엠스씨드가 운영하는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폴 바셋이 외식 상권 경쟁이 치열한 강남에 전략 매장을 열고 프리미엄 커피와 디저트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폴 바셋은 오는 3일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6번 출구 인근에 '폴 바셋 강남점'을 오픈한다고 1일 밝혔다.

강남점은 브랜드의 대표 콘텐츠인 커피와 아이스크림, 베이커리 등을 한 공간에 집약한 전략매장이다. 프리미엄 커피와 아이스크림, 밀도 베이커리 등 기존 시그니처 메뉴를 함께 선보이며 브랜드 경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원선 기자

방한 외국인 급증... 유통업계, 결제 등 맞춤형 서비스 강화

롯데백 전 점포 QR 결제 도입 예정
무신사 여권인증 고객 할인혜택 마련
CU 38개 언어 AI 통역 서비스 제공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역대 최대를 향해 가면서 유통업계가 '외국인 모시기' 경쟁에 나섰다. 결제 편의부터 멤버십, 교통, 생활 서비스까지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며 쇼핑 장벽을 낮추고 체류 기간 소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방한 외국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유통업계도 이들을 겨냥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방한 외국인 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96만여 명까지 감소했지만 이후 꾸준히 회복해 지난해 1893만662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750만2756명) 수준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에는 474만3122명으로 역대 분기 최

고치를 기록했으며, 4~5월에도 397만 3669명이 방한해 2분기 역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한 외국인에 의한 소비 증가세 또한 가파르다. 올해 1~5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소비액은 7조98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3% 증가했다. 5월 카드 소비액은 2조1222억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유통업계는 쇼핑 장벽을 낮추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쏟아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유통업계의 경쟁은 결제 편의 개선부터 멤버십, 교통, 생활 서비스까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해외 발급 비자카드도 분할 결제가 가능한 '나누페이'를 도입했으며, 롯데백화점은 유니온페이와 손잡고 오는 9월부터 QR결제와 NFC 기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을 전 점포에 구축할 예정이다. 세븐일레븐은 대만 관광객을 겨냥한 '다인페이' 결제를 도입했고, 신세계사이먼은 워커힐이 알리페이와 윈스톱 택스리펀드 키오스크를 운영하며 쇼핑 편의를 높이고 있다.

온·오프라인 연계 마케팅과 멤버십 강화도 활발하다. 무신사는 성수 메가스토어에서 글로벌 스토어 회원 전환을 유도하며 여권 인증 고객 할인과 다국어 상품 후기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멤버스는 외국인 전용 '엘포인트 글로벌 멤버십' 포털을 개편해 입국 전 가입만으로 모바일 바코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내 외

국인 회원 200만 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통과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강화되고 있다. 신세계사이먼은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을 찾는 외국인 증가에 맞춰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아울렛을 잇는 직통버스를 증편하고, 명동·홍대 출발 외국인 전용 버스타워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CU는 70여 개 점포에서 38개 언어를 지원하는 AI 통역과 외국어 셀프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GS25는 15개국 통화를 환전할 수 있는 키오스크와 외화 충전 포인트 전환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 고객 편의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트렌드는 단순한 상품 구매를 넘어 결제, 이동, 소통 등 쇼핑 과정 전반의 편리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화 중"이라며 "관광객들의 사소한 불편까지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생활 밀착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롯데칠성음료 핫식스 패키지 리뉴얼

롯데칠성음료가 에너지음료 브랜드 '핫식스'의 패키지 디자인을 3년 만에 전면 리뉴얼(사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브랜드 헤리티지를 강화하고 강렬한 에너지와 도전 정신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불사조 이미지를 대신해 날아오르는 불사조의 날개를 곡선 그래픽으로 표현했으며,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을 상징하는 블루 컬러를 전면 적용했다. 제품명은 중앙에 배치해 시인성을 높이고 브랜드 정체성을 강조했다.

2010년 출시된 핫식스는 카페인과 타우린 등을 함유한 에너지음료 브랜드로, 제로 슈거와 저칼로리 제품을 확대하며 제품군을 다변화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이마트24 '가뽀한입' 상품군 출시

이마트24는 고단백·저당·제로슈거 상품을 모은 신규 먹거리 브랜드 '가뽀한입'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가뽀한입'은 건강 관리와 자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기획한 상품 라인이다. 패키지 전반에 '고단백', '저당', '제로슈거' 등 상품 특성을 표시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출시 상품은 고단백 상품인 ▲닭이면 저나달걀이면저나도시탁 ▲갈릭치즈샌드위치 ▲참깨피넛샌드위치 ▲묵은지참치담백김밥과 저당 상품인 ▲오이계란김밥, 제로슈거 상품인 ▲제로슈거사케하이블레탄맛 등 총 6종이다. /김서현 기자

롯데웰푸드, 빼빼로 등 글로벌 마케팅 강화 롯데마트, 하반기 첫 통큰데이 행사

롯데웰푸드, 빼빼로 등 글로벌 마케팅 강화

롯데웰푸드가 미국 최대 식품 박람회인 '팬시푸드쇼 2026'에 참가해 핵심 브랜드를 앞세운 글로벌 마케팅에 나섰다. 해외 매출 비중이 30%를 넘어선 가운데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유통망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롯데웰푸드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팬시푸드쇼 2026'에 참가해 전시를 마쳤다고 1일 밝혔다. 미국 스페셜티 푸드 협회(SFA)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60개국

2400여 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3만 명이 넘는 유통·무역 관계자가 방문했다.

롯데웰푸드는 국내 식품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빼빼로, ZERO, K-스낵, 아이스크림, 푸드 등 5개 테마존에서 총 58개 제품을 선보였다. 빼빼로와 ZERO 브랜드를 비롯해 '찰옥수수', '설레임', '명기찰떡파이', '쌀로별', '쌀로칩', '췌푸드' 냉동김밥·삼각김밥, 파스타·가공유 등을 전시하며 제품 경쟁력을 알렸다. 박람회 기간에는 북미와 남미, 유럽 등 각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 상담도 진행했다. /신원선 기자

5일까지... 한우 최대 50% 할인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하반기 첫 '통큰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통큰데이'는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올해부터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먹거리 중심 할인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어와 전복, 한우, 닭고기 등 보양식과 삼계탕 간편식 등을 할인 판매한다. 초복을 앞두고 닭고기와 백숙용 상품도 함께 선보인다.

제철 농산물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수박·복숭아 전 품목을 할인 판매하며, 초

당육수수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축산 코너에서는 한우와 수입산 돼지고기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중계점과 제타플러스점 등 60여 개 점포에서는 국산 참다랑어 모듬회를 선보인다.

가공식품 행사도 마련했다. 냉면과 대용량 탄산음료는 다다익선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햇반과 냉동만두, 돈가스 등 일부 상품은 1+1 혜택을 제공한다. 와인 60종도 할인 판매한다.

주말인 4일과 5일에는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대상으로 골라담기 행사도 운영한다. /김서현 기자

사람 신약 기술 입힌 동물약... K-제약 미래 먹거리 부상

대웅팻, 우르소데옥시콜산 기술 동물용 'UDCA정 50mg'에 적용 HK이노엔, 동물용·인체용 함께 '원 소스 멀티 유즈' 전략 펼쳐 지엔티파마, 반려견 치매약 개발 해외시장 진출 위한 체제 구축



'베아솜' /대웅그룹



'제다큐어' /지엔티파마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동물의 약품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낙점하고 시장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과거 구충제나 영양제나 위주였던 동물약 시장은 이제 사람의 신약개발 기술을 이식하는 첨단 바이오의 경연장이 됐다.

1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대웅그룹은 동물용 치료제부터 의료가기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대웅제약과 바이오 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는 동물용 의료가기 '베아솜'을 새롭게 선보였다. 시지바이오는 대웅그룹 특수관계사로 미용성형, 상처치료, 뼈 및 척추, 내외과 분야에서 쓰이는 의료

기기를 개발해 왔다. 베아솜은 점착성 투명 창상피복재다. 1도 화상, 건조함, 창상 등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해 준다. 엑소솜, 성장인자 등을 포함하는 줄기세포 배양액을 처방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달에는 특수관계사 대웅팻에서 'UDCA정 50mg'을 발매했다. 인체용으로 검증된 대웅그룹만의 우르소데옥시콜산(UDCA) 기술력을 동물용 의약품에 적용한 것이다. UDCA정 50mg은 소화장애·고양이 맞춤형 저용량 제품으로 대웅팻은 기존 UDCA정 200mg에서 제품군을 세

분화했다. 반려동물의 체중과 상태에 따라 투여량을 조절해야 하는 임상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대웅팻은 세계 최초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2(SGLT-2) 억제제 계열 반려견용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트'도 개발해 왔다. 제36호 국산 신약 엔블로의 기전을 활용한 파이프라인이다. 지난해 말 국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품목허가를 신청해 올해 안에 품목허가 승인, 오는 2027년 출시 등이 목표다.

HK이노엔은 동물용 의약품 성공을 인체용 치료제 개발의 지렛대로 삼는 '원 소

스멀티 유즈' 전략을 구사하며 자체 개발 물질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투트랙 전략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 요소로 꼽힌다.

HK이노엔은 지난달 반려견용 먹는 아토피 치료제 'IN-115314'에 대한 임상3상을 마무리해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현재 반려견 아토피 시장은 글로벌 비파마조에티스가 차지하고 있다. IN-115314는 1일 1회 투여만으로 초기 빠른 반응을 보였고 가려움증 개선 효과가 지속되는 차별성을 갖췄다. 재발률이 높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 특성을 정조준해 투약 편의성과 치료 만족도까지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HK이노엔은 인체용 연구 제형 아토피 치료제 개발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IN-115314에 대해 국내에서 임상2상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임상1b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국내 바이오 벤처 지엔티파마는 일찍이 국내 최초로 반려견 치매 신약 '제다큐어'

를 개발한데 이어 최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

지엔티파마는 올해 4월 유럽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루게릭병 등 퇴행성 뇌질환 치료 신약 후보물질인 '크리스테살라진'의 제조공법에 대한 유럽 특허를 취득했다. 해당 특허로 지엔티파마는 제다큐어의 핵심 원료를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서 유럽 동물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아일랜드 사벨파마와 cGMP 생산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이번 특허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 2분기까지 제다큐어의 cGMP 수준의 글로벌 생산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동물의약품이 부업이 아닌,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며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과 생산 공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도달하고 있는 만큼 K 동물약의 글로벌 영토 확장이 점차 가시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삼성에피스홀딩스, '중국 R&D 센터' 가동

첫 해외 연구개발 거점 현지 인프라·인재 활용 예정



'삼성 바이오에피스 차이나'가 입주해 있는 중관촌 생명과학원 전경 /삼성에피스홀딩스

삼성의바이오투자주회사 삼성에피스홀딩스가 중국 연구개발 센터를 정식 개소하며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본격화한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 창핑에서 '삼성 바이오에피스 차이나(중국 R&D 센터)'를 공개하며 연구개발 활동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중국 R&D 센터는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첫 해외 연구개발 거점이다. 항체·약물 접합체(ADC) 기술 플랫폼 확보와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현장 특화형 조직이다.

이와 함께 삼성에피스홀딩스는 현지우

수한 연구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실제로 베이징 창핑은 바이오 첨단 기술산업단지인 '중관촌 생명과학원'이 위치해 있고 베이징대, 칭화대 등 명문 대학이 밀집한 바이오 최적지다.

김경아 삼성에피스홀딩스 사장은 "앞으로 중국 바이오 생태계와 긴밀히 협력하며 혁신 신약을 위한 후보물질 발굴 등 신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트룩시마', FDA 상호교환성 획득

美 리튬시판 시장 공략 탄력

측면에서 임상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공식 인정받은 것이다.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성분명: 리튬시판)'에 대한 상호교환성 지위를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리튬시판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FDA 상호교환성 지위를 획득한 첫 사례로, 트룩시마는 최초 상호교환성 바이오시밀러에 부여되는 독점권도 확보하게 됐다.

트룩시마는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혈액암 치료제이며 미국에서 비호지킨 림프종,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류마티스관절염,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등 오리지널 의약품이 보유한 모든 성인 적응증으로 허가받은 상태다.

상호교환성 지위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간의 교체 사용 가능성을 인정하는 제도다. 트룩시마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교체 사용해도 효능과 안전성

셀트리온은 트룩시마의 상호교환성 획득을 성장 모멘텀으로 삼아 미국 리튬시판 시장 내 제품 신뢰도와 지배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트룩시마는 올해 2월 기준 미국에서 35.8%(처방량 기준)의 점유율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 시장 진출 이후 오리지널 의약품을 포함한 글로벌 비파마 제품들과 경쟁하며 거둔 성과로, 국산 바이오시밀러 제품 중 처음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임상적 처방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 의료진들에게 트룩시마 처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향후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확대와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불면증 신약 '데이비고' 국내 상륙

SK케미칼, 한국에자이와 협력



고흥병 한국에자이 대표(왼쪽)와 SK케미칼 박현선 파마사업 대표가 '데이비고' 코프로모션 계약을 기념하며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케미칼

국내 첫 '오렉신 차단' 기전 불면증 신약 '데이비고'의 출시를 앞두고 한국에자이와 SK케미칼이 손을 잡았다.

SK케미칼은 한국에자이와 불면증 치료제 '데이비고'에 대한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SK케미칼은 300명 이상 병·의원에서, 한국에자이는 300명 이상 의료기관에서 프로모션 활동을 담당한다. 데이비고의 전국 유통은 SK케미칼이 전담한다.

데이비고는 램보렉산트 성분을 처방한, 이중 오렉신 수용체 길항제(DORA) 계열 약물이다. 오렉신은 뇌에서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관여하는 신경물질이다.

데이비고는 오렉신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차단해 과도한 각성 신호를 낮추

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과각성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수면 유지에 더욱 직접적인 효과를 갖췄다. 진정 작용을 통해 수면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기존 수면진정제와 차별화된 것이다. 현재 국내 불면증 치료제는 대부분 수면진정제 계열이다.

양사는 불면증 신약 데이비고 공식 발매와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적극 협업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100% 순면 생리대 '쫄피 리얼순면' 출시

LG유니잡이 아마트와 협업해 실속형 생리대 '쫄피 리얼순면'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쫄피 리얼순면은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에 100% 순면 소재를 적용한 제품이다. 장시간 착용하는 경우에도 피부에 편안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독일 피부과 학연구소에서 다마테스트를 통해 최고 안전 등급인 엑셀런트를 획득하기도 했다. 종류는 중형, 대형 등 2종이다.

LG유니잡 관계자는 "순면 생리대는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가격으로 인해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층이 많다"며 "쫄피 리얼순면은 생리대 양 옆의 날개 부분을 제외하고는 100% 순면커버를 갖췄음에도 부담 없는 가격을 반영한 만큼 고객들이 순면 생리대의 부드러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설화수 '백삼팩' 새 단장... 각질관리 강화

금빛 젤 제형으로 밀착력 높여



실제 인체적용시험 및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해당 제품을 2주간 사용한 고객들은 피부 표면이 매끄럽게 정돈된 느낌에 100%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스킨케어 제품이 더 잘 흡수되는 느낌'과 '메이크업이 잘 받는 피부 상태'에 대해서도 90% 이상의 만족도가 나타났다.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각질 관리 제품 '백삼팩(사진)'을 재단장한다고 1일 밝혔다.

백삼팩은 씻어내는 형태의 마스크팩이다. 피부에 쌓인 묵은 각질을 정돈해 피부 결을 맑고 매끄럽게 가꿀 수 있다.

이번 재단장으로 효능과 사용감은 한층 개선됐다. 백삼 파우더가 피부 표면의 불필요한 각질을 관리해 준다. 또 설화수 핵심 원료인 '자음단'을 더해 사용 후에도 편안한 피부 상태를 구현한다. 비타민C 유도체와 PHA 성분도 처방했다.

이와 함께 농밀한 금빛 젤 제형으로 설계해 피부 밀착력을 높였다. 비틀수록 은은한 온열감이 느껴져 마치 스팀 마사지를 받는 듯한 경험까지 제공한다. /이청하 기자

설화수 브랜드 관계자는 "백삼팩은 오랜 시간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설화수 대표 제품"이라며 "각질은 물론 피부결과 광채를 정돈하는 고급 스킨 프랩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100+

인공지능 (AI) 시대, 자산관리 전략도 달라져야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2026년 7월 9일(목) 오후2시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행사개요

- 행사명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 주제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도 달라져야
 - 일시 2026년 7월 9일(목)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 장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주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후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 등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2026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2시 30분 이후에는 행사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선착순 100명, 택1)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5	<축사>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5~14:50	송홍선 자본시장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AI와 자본시장, 기회와 위험
강연	14:50~15:20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
	15:20~15:50	최종진 한국투자증권 연금혁신본부 본부장
	15:50~16:20	정재훈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조교수
	16:20~16:50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전장부품 미래 먹거리 발굴

현대모비스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의 핵심 경쟁력인 전장부품 미래 먹거리 발굴에 힘쓰고 있다.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우수 아이디어는 곧바로 실행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제로 전환하고, 공모전 등을 통해 수시로 포상하는 제도를 운영해 능동적인 연구개발 문화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6 전장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차량음향 기술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노사, 흑서기 운영질환 예방 협약

현대제철은 노조와 흑서기 운영질환 예방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달 30일 충남 당진제철소에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인천공장과 경북 포항공장, 전남 순천공장 등 국내 사업장에서도 순차적으로 협약을 이어갈 예정이다. 협약에는 ▲휴게시설 제공을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냉방시설 및 냉방용품 지원 ▲고열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등 내용이 담겼다. /현대제철



신한은행, 서울여자간호대와 금융편의 제고

신한은행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와 대학 운영지원 및 구성원 금융 편의 제고를 위한 상호공동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의 주요 금융 파트너로서 대학 운영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체크카드 기능을 탑재한 학생증 발급을 지원한다. /신한은행

현대차그룹

베네수엘라 복구 성금 전달

현대차그룹은 최근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에 총 100만 달러(15억5000만원) 규모의 구호성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지원하기로 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돼 현지 구호 활동 및 피해 복구에 쓰이게 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 미국 캘리포니아 산발, 2023년 모로코 지진 및 리비아 홍수, 튀르키예 지진, 2022년 미국 허리케인 이인 등 해외 대규모 재해에 성금 및 생필품을 지원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인사 ◆국세청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 이동현 △충북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 정성우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 최만석

부음 ◆박정훈(서울 송파갑 국회의원)씨 부친상 ▲박수광(전 충북 음성군수·향년 80세)씨 별세, 양극덕씨 남편상, 박정훈(서울 송파갑 국회의원)·박정민(전 EBS PD)·박정용(티원 대표이사)씨 부친상, 차나연·홍혜림씨 시부상 = 1일 0시15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3일 오전 8시30분, 장지 음성 생귀추모공원. ☎ 02-3010-2000

LG이노텍, '피지컬 AI'로 미래 인재와 점점 넓힌다

대학생 공모 43작품 접수
임직원 투표로 6편 선정
시네마스코프 대상 수상

LG이노텍이 '피지컬 AI'를 앞세워 미래 인재와의 접점을 넓힌다.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기술 비전을 공유하고 브랜드 소통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LG이노텍은 '2026 대학생 유튜브 숏폼 광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회사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미래 인재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대학생 대상 광고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공모전은 LG이노텍의 미래 육성 사업 분야인 피지컬 AI를 주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LG이노텍의 핵심



서울 강서구 LG이노텍 마곡 본사에서 열린 '2026 대학생 유튜브 숏폼 광고 공모전' 시상식에 참가한 수상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LG이노텍

기술이 적용된 미래 모습을 숏폼 영상으로 자유롭게 표현했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43개 작품이 접수됐다. 이 중 LG이노텍 임직원들의 온라인 투표 결과

를 반영해 최종 수상작 6편이 결정됐다. 득표 순으로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4팀이 선정됐다.

올해 대상은 '시네마스코프(박성현)팀'의 'LG Innotek Physical AI Lab'이

차지했다. 이 작품은 '피지컬 AI 실현실'을 배경으로, 로봇이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며 움직이게 되는 과정을 한편의 짧은 실험 기록 형식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수상작들은 주제 적합성,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의적인 연출 방식, MZ세대 선호도 등 다양한 평가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짧은 영상 안에 미래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LG이노텍은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각 100만원 등 수상팀에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수상작과 참가자 인터뷰 영상은 추후 LG이노텍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여성·1인 소상공인 위한 스마트 안전망

소진공, 대전경찰청과 범죄예방 '스마트 안심 태그 보급' 사업 추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전경찰청과 손잡고 여성, 1인 소상공인 안전을 지킨다.

소진공은 1일 대전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대전광역시경찰청과 여성 및 1인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을 전담할 수 있는 '안심 골목상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여성과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영업 환경을 구축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찾는 골목상권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소진공은 대전경찰청과 협업으로 NFC(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한 안전망 구축과 안심 상권 브랜드 구축을 통해 안심 골목상권 조성을 위한 '스마트 안심 태그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7월 한달 간 대전지역 골목형상점가 2곳을 대상으로 여성·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심 태그 스티커를 보급하고 상점가 진입로에 현수막 게시와 SNS 홍보 등을 통한 시범운영 후 시스템 오류와 요구사항을 보완 하여 8월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골목상권 내 여성·1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현황 제공 등 협업체계 구축 ▲NFC 스마트 안심 태그 사업의 공동 추진 및 홍보 ▲기타 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상대적으로 여성·1인 소상공인들의 경우 범죄와 안전사고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전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여성·1인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HD현대1%나눔재단, 생물표본 전시

중증장애인 제작사 양성 성과 소개 국립공원공단과 3년간 사업 추진 곤충·식물·압화 표본 국회 공개

HD현대1%나눔재단은 오는 2일까지 서울 국회의사관 제2로비에서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중증장애인 생물표본 제작 성과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HD현대1%나눔재단과 국립공원공단이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중증장애인 생물표본 제작사 양성·운영' 사업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제작한 곤충표본, 식물표본, 아크릴 압화 식물표본 등이 공개된다. 전시물은 ▲꿈 ▲공생 ▲나눔 ▲도약의 씨앗 등 4개 테마로 구성됐다.

해당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생물 시

료 선별과 표본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조사와 기록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HD현대1%나눔재단은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을 후원했다. 이를 통해 훈련장애인 20명과 근로장애인 24명이 생물표본 제작사 양성 과정과 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생물표본은 생태계 변화 관찰과 생물다양성 연구에 활용되는 자료다. 중증장애인 생물표본 제작사들은 주당 1만 마리 이상의 곤충을 분류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지난 2020년에는 미기록종인 '청동방아벌레'를 발견하는 성과도 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오비맥주, 폭염 대비 OB워터 나눔

취약계층 온열질환 예방 지원 대구 장애인·전국 노숙인시설 전달

오비맥주는 폭염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재해구호용 생수 'OB워터' 3만 1,000여 병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된 생수는 오비맥주가 지난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 재해구호용 물량의 일부다. 장애인과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수분 보충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활용된다.

지난달 11일에는 한국적수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에 8600병이 전달됐으며, 같은 달 22일에는 전국노숙인시설협회에 2만 3000여병이 전달됐다. 전국노숙인시설협회에 전달된 생수는 인천 거점소를 통해 서울·경기·인천·강원·제주 지역 노숙인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OB워터는 오비맥주가 산수음료와



오비맥주가 폭염 취약계층 위해 'OB워터' 3만 1,000여 병을 지원한다. /오비맥주

협업해 제작한 500ml 재해구호용 생수로, 사탕수수 유래 소재를 적용한 용기와 라벨, 뚜껑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오비맥주는 2016년부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력해 재난 발생 시 생수 등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긴급구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부한 생수는 500ml 기준 약 88만 병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LG화학, 청년 실무형 인재양성 박차

'Let's Grow'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AI·데이터 기반 문제해결 역량 강화

LG화학이 미취업 청년들의 실무 경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LG화학은 'Let's Grow with LG화학'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Let's Grow with LG화학'은 K-뉴딜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LG화학의 밸류체인 기반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AI)·인공지능

전환(AI) 기술과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역량을 익히며, 여수 국가산업단지 기반 현장 교육과 직무 과제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교육 과정에서는 코칭 인증공인교육 수료증과 AX 전문가 Level 1 등 자격 취득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수료생 전원에게 'LG 스탠바이미'가 지급된다.

교육 기간에는 오산 월 최대 30만원, 여수 월 최대 50만원의 훈련 수당이 지원되고, 숙박 또는 통근버스 등 교육 편의도 제공된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

내일채움 가입자

역량강화 교육 시작

중진공, 배움채움 1000명 선착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성과보상 공제 가입 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와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통합 교육과정인 '2026년 내일채움 배움채움'의 신청접수를 1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내일채움공제와 중

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공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까지로,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교육은 중소기업 현장의 가장 화두인 '디지털 역량 강화'와 '안전한 일터 조성'에 대한 수요를 적극 반영해 '인공지능(AI) 실습 집합 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신규 과정으로 편성했다. /김승호 기자

미래차 시대, 정책은 현장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성욱
스마트카 'TALK'

정부는 최근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통해 자율주행, 전기차,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이동수단 육성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산업 전환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이지만, 문제는 정책의 방향보다 속도와 실행 순서에 있다. 미래차 기술의 발전 가능성은 강조하면서도 국내 자동차 산업이 이를 감당할 생산 기반, 부품 생태계, 인증 체계, 정비 인프라, 전문인력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자동차 산업은 단순한 정보통신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산업이다. 따라서 기술 도입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성과 산업 전환의 실행력이다. 자율주행차는 센서와 인공지능뿐 아니라 제동·조향장치, 차체 구조, 고전압 안전성, 사고 대응, 정비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책은 실증사업과 상용화 확대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며, 기술 실패 시 책임과 검증 체계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

전기차 전환 역시 보급 확대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배터리 안전성, 충전 인프라, 화재 대응, 고전압 정비 인력, 폐배터리 관리, 부품 공급망이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보급 대수 중심 정책은 정비 불균형과 소비자 불안, 안전사고 대응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

또 미래차 정책은 완성차 기업뿐 아니라 부품업체, 정비업체, 시험·인증기관 등 산업 생태계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내연기관 부품업체가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 분야로 단기간에 전환하기는 어렵고, 정비업체 역시 고전압 안전교육과 진단 장비가 없으면 미래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이러한 전환 비용과 지원 방안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자동차 안전 인증 체계의 고도화도 시급하다. 기존 자기인증 제도만으로는 자율주행과 전기차의 복합 기술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 자율주행은 도로환경과 소프트웨어 오류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안전성이 달라지고, 전기차는 배터리 충돌 안전성과 열폭주 등 새로운 위험 요소를 갖는다. 따라서 실증 확대보다 시험·평가·인증 기준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

모빌리티 정책은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설계·생

산·유지하는 산업이라는 본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플랫폼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차량의 구조 안전성과 내구성, 정비성, 인증 적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은 지속될 수 없다. 또한 국제 안전기준과의 적합성을 높여 수출 경쟁력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의 정책은 세 가지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기술 상용화보다 안전성 검증 체계를 우선 구축해야 한다. 이어 두 번째로 완성차 중심 지원을 넘어 부품업체와 정비업체, 시험·인증기관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 전체의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세 번째는 보급 대수나 실증사업 중심의 성과 평가에서 벗어나 안전성, 지속가능성, 산업 전환 수준을 중심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모빌리티 혁신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자동차 산업의 기본인 안전, 생산 기반, 인증, 정비, 부품 생태계를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미래차 경쟁력은 기술 발표의 속도가 아니라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되고,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산업 전체가 함께 지속가능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확보될 것이다.

/중부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교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KASA) 회장

폴더블의 시간은 이제부터



기지수첩
차현정
(산업부)

삼성전자가 하반기 갤럭시 언팩을 앞두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 속 초콜릿을 부러뜨리고 사진을 찍는 짧은 장면에는 '새로운 폴더블'과 '다인업 확대'라는 방향성이 녹아 있었다. 삼성전자가 7세대 동안 다져온 폴더블 전략을 한 단계 확장하겠다는 선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 첫 갤럭시 폴드를 내놓은 이후 폴드와 플립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시장을 키워왔다. 경쟁사들이 시장성을 지켜보는 동안 삼성은 접히는 스마트폰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올해 언팩은 예년과 분위기가 다르다. 내년 하반기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 출시가 가점사실화되면서 폴더블 시장의 경

쟁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들은 애플이 출시 첫해부터 글로벌 폴더블 시장 점유율 20% 후반대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간 삼성이 사실상 독주했던 프리미엄 폴더블 시장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는 셈이다. 폴더블 시장은 단순히 판매량 경쟁을 넘어 AI 시대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주도권을 가르는 무대로 바뀌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애플의 참전이 오히려 폴더블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반 스마트폰은 생산량이 늘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폴더블은 반대다. AI 기반 멀티태스킹 수요가 커지면서 대화면 북형 폴더블이 시장의 중심이 되고, 초프리미엄 제품 비중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흐름에서 삼성이 이번 티저를 통해

강조한 '새로운 선택지'는 의미가 적지 않다. 폴드와 플립만으로는 달라진 시장의 수요를 모두 담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트리폴드 등 새로운 폼팩터를 준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애플의 진입이 곧 삼성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폴더블 시장 자체가 커지고, 삼성디스플레이가 애플의 폴더블 OLED 패널 공급망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품 산업에서는 또 다른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 완성품에서는 경쟁자지만, 공급망에서는 협력하는 스마트폰 산업 특유의 구조가 다시 한번 펼쳐질 전망이다.

결국 소비자는 새로운 형태보다 새로운 경험에 지갑을 연다. AI 시대에도 폴더블이 프리미엄의 상징으로 남을 수 있을지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사용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완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hyeon@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일 (음 5월 1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수익을 흥청망청 쓰지마세요. 60년생 나서지 말고 한 발짝 물러나세요. 72년생 확실한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84년생 헤어졌던 연인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49년생 재관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61년생 낯선 사람의 갑작스러운 접근을 주의하세요. 73년생 친구를 너무 믿지 마세요. 85년생 굳센 마음으로 꾸준히 정진해야 합니다.



50년생 타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62년생 늦은 저녁 외출을 삼가세요. 74년생 집에 있는 것이 낫한 하루입니다. 86년생 지금의 손해를 감수하는 게 다음을 위해서 유리합니다.



51년생 여행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63년생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75년생 남쪽이 좋은 기운을 주는 길방입니다. 87년생 타인의 실수로 인하여 당신까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52년생 친구들에게 희망을 걸지 마세요. 64년생 먼 친척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76년생 주변의 도움요청을 흔쾌히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88년생 항상 베푸는 자세로 일관하세요.



53년생 당장의 금전적 손실에 흔들리지 마세요. 65년생 계획대로 밀고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 집니다. 77년생 차분하게 생각하세요. 89년생 깊은 뜻을 되새겨야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54년생 하는 일마다 실속이 따르게 됩니다. 66년생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입니다. 78년생 뜻밖에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옵니다. 90년생 전화위복의 기회가 옵니다.



55년생 저녁에 친구들과 즐거운 만남을 가지세요. 67년생 잠시 쉬며 휴식을 취하는 것이 낫습니다. 79년생 이성과 마음을 부드럽게 화합해야 합니다. 91년생 마음에 드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56년생 주위사람의 조언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68년생 어려움이 있으나 가족과 상의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80년생 이성문제로 고민이 생깁니다. 92년생 자금관리에 신경을 쓰세요.



57년생 생활의 페이스를 놓치지 마세요. 69년생 아랫사람과의 불화를 용서해주세요. 81년생 모든공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93년생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58년생 부부사이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70년생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82년생 마음을 정리하기에 좋은 하루입니다. 94년생 더욱 더 학업에 정진하면 좋습니다.



59년생 반드시 말을 조심하세요. 71년생 어설픈 감정은 후회를 부릅니다. 83년생 가볍거나 사소한 장난도 조심해야 합니다. 95년생 남의 흉을 보면 결국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김상회의四季

타초경사, 숨은 위험 피하기

타초경사(打草驚蛇)는 '풀을 두드려 뱀을 놀라게 한다'는 뜻이다. 가벼운 자극을 주어 숨어 있는 적이 드러나게 하거나, 어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탐색의 기술로 활용한다.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선불리 온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슬쩍 풀을 건드려서 뱀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중국 병법 36계 중 하나인 타초경사는 앞길의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영리한 지팡이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다 보면 안개 속을 걷는 듯한 기분에 휩싸일 때가 있다. 상대의 속마음을 알 수 없어 답답할 때도 있고, 추진하려는 일이 과연 안전한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럴 때 전략은 안개를 슬쩍 걷어내는 역할로 앞뒤 가리지 않고 무작정 돌진하기보다 먼저 상황의 흐름과 반응을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때때로 지나친 자신감에 빠져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인생을 걸곤 한다. 이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큰 걸음을 내딛기 전에 반드시 작은 돌을 먼저 던져본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팝업 스토어를 열어보거나, 이직하기 전 동종 업계 사람들과 가벼운 차한 잔을 나누며 흐름을 살펴본다. 이런 것이 현대인의 타초경사다. 어딘가 숨어 있을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깨워 직접 확인하면 큰 실수를 피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남달리 행동이 앞서는 성향이 있다. 이런 사람은 사주에 식상이나 겁재가 강한 경우가 많다. 승부욕이 대단해서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추진력이 강하다. 일을 추진할 때는 좋은 성과를 끌어내지만, 한편으로는 앞뒤를 잘 살피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열심히 달리기만 하다가 이유도 모른 채 엎어지는 경우가 많다. 창업, 투자, 인간관계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살피고 뱀이 나오면 그에 알맞은 대비책을 미리 세우라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6시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6	2	9	9	8	7	2
2	8	9	6	7	1	9	8
9	1	6	7	8	2	9	1
7	8	1	1	6	9	6	9
8	7	2	9	6	8	1	
9	7	9	8	2	1	1	8
8	9	1	1	6	7	2	9
1	8	2	9	6	7	9	1
9	9	6	2	1	8	7	8
6	9	1	9	8	2	8	7

2			8				3
	8						6
		3	6	7	5	2	
		9	8		4	7	
5		7				8	9
		8	7		9	5	
		1	4	2	7	6	
7							5
8			9				7

2	1	8	6	9	9	7	8
7	9	8	8	9	1	2	1
8	6	9	2	2	7	1	9
9	8	9	6	7	1	8	2
6	7	8	1	8	2	1	9
2	1	1	7	9	8	6	9
1	8	2	9	1	9	8	6
9	9	6	2	1	8	7	8
8	1	7	9	8	6	9	1
8	1	7	9	8	6	9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4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1 2017년3월09일 제204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아이들 성장으로 증명”... 기초학력·마음건강 강화 방점

정근식 2기 서울교육 출범

공교육 내 학습격차 진단·지원 부적응, 정서·사회성 회복 나서 현장 경험, 정책 연계 교육행정

“서울교육을 말보다 실천으로, 성과보다 신뢰로, 정책보다 아이들의 성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제2기 임기를 시작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소화한 뒤, 서울교육청 대강당에서 제24대 서울교육감 취임식을 가졌다.

정 교육감은 앞으로 4년간 서울교육이 집중할 과제로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 인공지능(AI) 시대의 인간 중심 교육,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협력 행정을 제시했다.

정 교육감이 밝힌 서울교육의 방향은 기본은 깊게, 협력은 넓게, 행복은 가까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제2기 임기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놓인 ‘기본’은 기초학력과 기본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학생들이 학교급이 올라 갈수록 학습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공교육 안에서 조기에 진단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더 촘촘히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모든 아이가 삶을 살아가

는데 필요한 배움의 토대를 공교육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아니라, 유아기부터 배움의 출발선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 시민성을 기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기초학력은 모든 배움의

출발”이라며 “한 명의 학생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마음건강 역시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기본 영역으로 다뤄졌다. 정 교육감은 마음건강을 “아이들의 성장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기초”라고 했다. 학습 결손과 정서적 어려움이 맞물려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학습 지원과 정서 지원을 함께 살피는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학교 부적응, 정서·사회성 회복, 고위험 학생 지원은 2기 서울교육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과제다.

AI 교육에서는 기술 활용보다 사람 중심의 교육을 앞세웠다. 정 교육감은 “AI를 배우는 교육을 넘어 AI 시대에도 더욱 인간다운 교육을 실천하겠다”며 “디지털 기기 활용이나 코딩 교육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읽고 생각하는 힘, 공감과 협력, 책임 있는 시민성을 학교교육의 중요한 역량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도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현장의 경

합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교육행정을 만들겠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동계획·공동실천·공동평가를 바탕으로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교육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협력 주체로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학교와 가정을 “한 아이의 성장을 함께 책임지는 교육공동체”라며 “학부모를 교육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학교와 가정의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자치구와의 협력 구도도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돌봄과 복지, 안전, 문화·생태 교육 등 학교 안에서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지역 자원과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교권 침해와 생활지도 어려움이 커진 학교 현장에 대해서는 교직원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여의도공원, 문화·생태 거점으로 변신

서울시, ‘재조성 마스터플랜’ 공개 제2세종문화회관 연계 재편 내년부터 2030년까지 공사 추진

서울 여의도공원이 한강과 셋강, 제2세종문화회관을 잇는 문화·생태 거점으로 재조성된다. 공원 중심부에는 대규모 문화행사를 열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마련되고, 주변 도로와 공원 경계부는 보행과 휴식이 가능한 선형공원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여의도공원 재조성 마스터플랜을 1일 공개하고, 이달 중 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2027년부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공사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2030년까지 시민 불편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새로 들어서는 제2세종문화회관과 연계해 여의도공원을 문화활동과 휴식, 생태 체험이 가능한 미래형 공원으로



여의도공원 재조성 마스터플랜 조감도. /서울시

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재조성 대상지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부지를 제외한 19만5539㎡다. 서울시는 기존 공원의 식생과 지형, 수계 등 생태 자원을 최대한 살리면서 공원 내부와 주변 도시 공간의 단절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새 여의도공원의 핵심은 공원을 ‘세 겹의 구조’로 다시 짜는 것이다. 중앙에는

대규모 열린 공간인 ‘여의뜰’을 조성해 공연, 축제, 시민 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수용한다. 이 공간은 제2세종문화회관과 생태숲을 잇는 공원 중심축 역할도 맡는다. 공원 동서 방향에는 두 겹의 선형 공원이 조성된다.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추진된다. 서울시는 기업의 ESG 참여와 시민 참여를 결합한 ‘여의도공원 컨서번시’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은 공원 프로그램 후원 등에 참여하고, 시민은 공원 가꾸기와 운영 프로그램에 함께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번 재조성 계획은 서울시가 실시한 ‘여의도공원 재조성 설계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사람과나무(주) 외 2개사의 ‘함께 가꾸는 여의도공원’을 최종 선정했다. 당선팀에는 설계용역 우선협상권이 주어진다.

/이현진 기자

광주시 中企, 동남아 690만弗 수출상담 성과

태국·말레이시아 ‘시장개척단’ 운영

광주시 지역 중소기업들이태국과말레이시아에서 6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며 동남아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시는 이번 상담 성과가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지 마케팅과 바이어 발굴을 연계한 후속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방콕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026 동남아 시장개척단’을 운영한 결과, 모두 77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690만 6000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약 262만 달러 규모는 계약 추진 단계까지 이어져 추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시장개척단에는 광주시 소재 제조업체 8곳이 참가했다. 참가 기업들은 현지 바이어와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며 제품 경쟁력을 소개하고 시장 수요를 확인했



광주시 동남아 시장개척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다. 상담 품목은 식품을 비롯해 산업용 기자재와 제조설비, 포장재 등으로 다양했으며, 일부 바이어들은 견본 제품 테스트와 공장 방문, 추가 협의를 요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별로는 방콕에서 40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쿠알라룸푸르에서는 37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현지 기업들과 모두 5건의 업무협약(MOU)도 체결해 향후 거래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경기)=유진재 기자 yujin@

경기도 유망 스타트업 투자매칭 60건 성사

경기도-경과원 ‘Invest Connect 1차’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도내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투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며 60건의 투자 매칭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지난 30일 성남 판교 경기스타트업브릿지에서 ‘Invest Connect 1차’를 개최하고 스타트업과 투자기관 간 총 60건의 투자 상담 및 비즈니스 매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Invest Connect’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

는 ‘2026 경기 스타트업 서밋(G-SUMMIT 2026)’을 앞두고 연중 운영하는 공식 투자 연계 프로그램이다.

‘경기 스타트업 서밋’은 경기도와 경과원이 지난 2024년 처음 선보인 국제 스타트업 박람회, AI와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스타트업 30개사와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 투자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하나벤처스, 미래이셋벤처투자, 포스코기술투자 등 국내 주요

투자기관 15개사가 참여해 투자 및 사업 협력 가능성을 집중 검토했다.

사전 모집에는 창업 7년 이내(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스타트업 130개사가 신청해 약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행사는 기업설명회(IR) 피칭과 1대1 비즈니스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 기업들은 사전 IR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발표를 준비한 뒤 핵심 기술과 비전을 소개했으며, 투자기관은 사전 검토를 거친 기업들과 30분씩 총 4차례 상담을 진행해 모두 60건의 투자 매칭을 성사시켰다.

일부 스타트업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사업협력 논의로 이어지는 성과도 거뒀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5 | 해질 / 19:57

7월 2일 (木) 음력 : 5월 18일

수도권 날씨 22~3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9/30, 동두천 19/30, 가평 19/30, 파주 19/30, 서울 22/31, 양평 20/31, 인천 22/29, 수원 22/30, 용인 22/30, 평택 20/3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 ▲ 시진핑, 창당 기념 행사서 “대만 독립 분열세력 타격해야”
- ▲ 러시아, 핀란드 등 나토 3국과 철도국경 잠정폐쇄

/사진 뉴스1

- ▲ 우크라, 러시아 핵심 통신위성시설 타격...전쟁 종식 압박
- ▲ 日 도쿄, 내년 4월부터 숙박세 3% 정률제 시행

- ▲ 레오 14세 위기...전통주의, 교황 승인없이 서품 강행
- ▲ 오만, 미에 호르무즈 통행료 대신 서비스 부과 제안



CJ제일제당
사업구조
전면 개편
니



Life

신약기술 입힌
동물약
미래먹거리 부상
L2



스페셜티로 품미 ‘블렌딩’... 저가커피 편견 깬 21년 내공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뽕다방’

2006년 서울 논현동 골목길에 1호점을 오픈하며 첫발을 내디딘 더본코리아의 커피 전문 브랜드 ‘뽕다방’이 올해로 출범 21년차를 맞이했다.

국내에 커피 문화가 대중적으로 정착되지 않았던 시절, 1000원대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커피를 선보인 뽕다방은 합리적인 커피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뽕다방은 단순한 저가 마케팅을 넘어 끊임없는 품질 혁신과 상생 경영을 통해 통련하고 있다.

2006년, 논현동 골목길에서 시작해 1000원대 합리적인 커피시장 열어 품질혁신·상생경영으로 21년간 통련

저가브랜드 최초 ‘스페셜티 원두’ 배합 바리스타 챔피언과 협업... 경쟁력 ↑ 에어폼으로 마시는 재미까지 더해

◆ 동네 골목 대용량 ‘원조커피’ 탄생

뽕다방의 출발은 거창한 프랜차이즈 기획이 아닌, 고객을 향한 백종원 대표의 선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2000년대 중반 백 대표가 운영하던 서울 논현동 먹자골목의 식당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낮밤 가릴 것 없이 몰려든 손님들로 인해 주변의 불법 주차차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식당 입구에 위치한 작은 카페였다.

당시 영업을 겪던 카페 사장은 백 대표에게 매장을 인수해 줄 것을 요청했고, 백 대표는 자신의 식당을 찾아주는 고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고자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카페를 인수한 백 대표는 평소 자신이 즐기던 믹스커피를 질리지

않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대용량으로 고안해 냈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의 뽕다방을 있게 한 시그니처 메뉴 ‘원조커피’의 모태다.

브랜드의 성장 과정에서 로고와 상호명의 변천사도 흥미롭다. 사업 초기 뽕다방은 ‘짜다, 크다, 맛있다’라는 슬로건 아래 ‘원조믹스’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으며, 스타벅스를 위트 있게 패러디한 로고를 사용했다. 이후 2008년 베트남 모자를 쓴 로고와 함께 지금의 ‘뽕다방’이라는 이름을 확정 지었다. 친근하고 푸근한 백 대표의 이미지를 살린 로고로 진화하며 대중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했다.

◆ 스페셜티 원두 20% 배합의 혁신

뽕다방이 장기 흥행을 이어올 수 있었던 핵심 원동력은 가격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품질 관리에 있다. 뽕다방은 저가 커피는 맛이 없다는 선입견을 깨기 위해 수확한 지 1년 미만 된 아라비카 뉴크롭 생두를 엄선해 사용해 왔다. 브라질 원두 특유의 묵직한 바디감과 아몬드의 고소함, 밀크초콜릿 같은 은은한 단맛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품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커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뽕다방은 동종 저가 커피 브랜드 최초로 일반 아메리카노에 ‘스페셜티 원두’를 20% 배합하는 강수를 두었다. 타 브랜드들이 스페셜티 원두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5~10% 수준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독보적인 행보다.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고소하고 묵직한 다크 초콜릿 향을 유지하면서도, 국제 스페셜티커피협회(SCA) 기준을 통과한 고품질 스페셜티 원두의 ‘고급스러운 산미’를 조화롭게 녹여냈다. 처음과 끝맛은 묵직하게 잡아 주고, 중간에 입안 가득 퍼지는 섬세한 산미가 커피 품미의 깊이를 더해준다는 평을 받는다.

라떼류 역시 전용 우유에 꾸덕한 질감의 생크림을 더하는 독창적인 레시피를 적용, 첫 모금부터 마지막 한 모금까지 씹씹함 없이 크리미하고 고소한 맛이 길게 이어지도록 설계 경쟁사들과의 확실한 맛의 차별화를 이뤄냈다.



▲ 뽕다방이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우승자 엄보람 바리스타와 손잡고 시그니처 블렌드 원두 캠페인을 펼친다.
▶ 뽕다방 ‘에어폼 아메리카노’ /더본코리아

◆ 마시는 경험의 확장

뽕다방은 글로벌 바리스타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원두 경쟁력을 한층 더 공고히 다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2023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WBC) 우승자인 엄보람 바리스타와 함께 손을 잡고 시그니처 블렌드 원두 중심의 대대적인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했다.

엄보람 바리스타가 브라질에서 직접 운영하는 농장인 ‘파젠다 엠(Fazenda Um)’에서 생산된 최상급 스페셜티 원두를 공급받아 시그니처 블렌드에 적용했으며, 그 배합 비율을 꾸준히 확대해 가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고품질 원두를 대거 수용해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커피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더불어 뽕다방은 단순한 맛의 경쟁을 넘어 ‘마시는 경험과 질감’의 영역으로 메뉴 개발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출시된 시즌 한정 메뉴 ‘에어폼 아메리카노’가 대표적인 예다. 스팀 방식으로 공기를 정밀하게 주입해 아메리카노 상단에 미세한 커피 거품층을 형성한 이 메뉴는, 거품이 향을 가두어 한층 풍부한 품미를 선사할 뿐만 아니라 기존 아메리



카노에서 느낄 수 없었던 부드러운 목넘김과 색다른 재미를 부여하며 트렌디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모바일 스마트오더로 탄탄한 록인효과 본사마진 최소화... 가맹점주 수익보장 위기마다 실질적 지원으로 착한동행

◆ 멤버십·배달 활성화 ‘상생 경영’

뽕다방의 성공 이면에는 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디지털 전략과 탄탄한 상생 모델이 자리 잡고 있다.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선제적으로 도입한 모바일 앱의 ‘스마트오더’ 시스템과 촘촘한 멤버십 스탬프 적립 기능은 충성 고객층을 단단히 묶어두는 록인(Lock-in) 효과를 발휘하며 비수기 없는 안정적인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여기에 다양한 배달 플랫폼과의 프로모션 협업으로 매출도 꾸준히 성장세다.

무엇보다 본사인 더본코리아의 ‘상생 경영’ 철학은 뽕다방이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뢰를 얻는 배경이 되었다. 뽕다방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사 마진을 최소화하고 원가 절감 혜택을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 과거 위기 상황마다 로열티 면제, 주요 식자재 공급가 인하 등 실질적인 상생 조치를 단행해 왔으며, 가맹점 출범 시에도 점주의 수익률 보장을 최우선 순위로 둔 까다로운 입지 선택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멕시코, 에콰도르 잡고 16강...40년 만에 토너먼트 첫 승 /사진 뉴시스
▲ K리그 FA자격 선수 338명 공개...김진규·기성용 등

▲ 2027 KBO 신인드래프트 접수...8월22일까지 신청 가능
▲ ‘홍명보 선임’ 축협 고발, 서울청 광수단서 직접 수사

▲ 배재고 야구부, 광주제일고 방문사과 연기...광주일고 “마음의 준비 안 돼”
▲ 쇼트트랙 기대주 김민지, 넥스트크리에이티브와 계약

SK telecom

2026



오래 쓰길 잘했다 이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1984

1984년부터 10년, 20년,
그리고 40여년에 이르기까지
고객님과 함께한 오랜 시간 뒤에
SK텔레콤이 가장 듣고 싶은 말
“오래 쓰길 잘했다”

그 어떤 혁신적 비전보다
어느 최첨단 기술보다
고객님께 들려올 이 말 한마디가
저희가 향해야 할 답이고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을 내어 주신 오랜 시간이
장기고객님께 기분 좋은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그 한마디를 위해 달리겠습니다

다시 고객이라는 출발점에서

SK텔레콤 CEO

정재현

T 장기고객 프로그램

데이터 혜택 제공 · 공연/전시 할인 · 단독 이벤트 초청 · T 멤버십 VIP 승급
* 혜택별 대상·조건·기간·제공 방식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T 멤버십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0년 이상 장기고객님들을 위한 스페셜 케어

직접 찾아가는 방문 케어 · 장기고객 전문 상담 케어

국가고객만족도
이동전화서비스 부문
29년 연속 1위

